

경기도 창업보육사업의 여성참여 실태와 과제

연 구 책 임 최 윤 선 (본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지 원 장 미 (본원 위촉연구원)

발 간 사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해 기존의 직업이나 일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누구나 도전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업의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역시 다양한 창업 정책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여성 창업지원 정책과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창업친화적인 사회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존 창업보육사업의 여성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여성 창업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과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그간의 경험과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경기도 창업관련 기관 전문가 및 창업매니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자로서 애써준 최윤선 선임연구위원과 장미 위촉 연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경기도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 목 자

연구 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위기가 가장 고조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의 벤처창업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로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그 과정에서 창업정책은 정부 주도의 기술 중심 창업 활성화 정책 중심으로 강화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창업보육센터가 도입되었음.
-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기술 중심 창업에 더하여 문화콘텐츠나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지식산업 분야 창업과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크게 확장되었음. 이와 같이 창업과 관련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그런데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창업친화적인 사회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GEM, 2013), 여성들에게는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여성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음.
- 여전히 우리나라 창업 정책은 기술 중심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방식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창업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단계별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 사업을 확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약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사업도 확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공형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 창업 정책 현황을 토대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창업지원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

〈표 1〉 주요 연구 방법 및 절차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input type="checkbox"/> 여성창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input type="checkbox"/> 2017년 창업기업실태조사, 2017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검토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창업보육관련 사업 여성 참여율 및 예산 현황
조사설계 를 위한 자문	⇒	<input type="checkbox"/> 조사범위 선정과 조사 방법에 대한 현장 전문가 자문 -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운영 책임자, 여성 창업보육기관 운영 책임자,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 회장 - 창업보육기관 책임매니저 FGI시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자문
창업보육기관 설문조사 실시	⇒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요: 공공형 창업보육기관(80개) 대상 조사 실시 : 49개소 회수(61.2%) <input type="checkbox"/> 조사방법: 현황조사 및 여성기업별 조사를 위한 웹 조사 프로그램 개발 후 이메일 조사 <input type="checkbox"/> 조사내용: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입주기업 전체의 일반 현황, 입주한 여성기업별 현황 조사, 여성창업관련한 창업매니저 인식 조사 <input type="checkbox"/> 조사지개발 BI 매뉴얼 검토, 조사지 초안 대상 자문 및 설문지 확정을 위한 서면검토
창업매니저 FGI	⇒	<input type="checkbox"/> FGI 참여기관 선정 : 여성 입주 기업수 및 여성친화 주력분야인 창업보육센터 대상 - 창업보육기관 창업매니저 11명(사업담당자 2명포함)
전문가 자문 (착수, 중간)	⇒	<input type="checkbox"/> 연구설계에 대한 자문 <input type="checkbox"/> 정책제언 및 실현가능성 점검을 위한 자문회의

2. 여성기업 특성과 정책 현황

가. 여성 창업자의 특성 및 여성기업의 어려움

- (전공) 창업자 성별 전공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 계열별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남성은 공학계열이 33.9%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공학, 자연, 의학계열을 모두 합친 비율이 16.1%에 그치는데 비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또한 여성 창업자 중 17.2%는 예체능계열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는 남성에 비해서 9.4%p 높은 비율임.

- **(이전직장)** 남성 창업자 중 69.3%는 창업 직전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47.9%만이 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 53.9%가 전업주부로 있다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일반 사무직 종사 비율이 32.5%로 가장 높고, 기능 생산직은 15.0%, 연구 기술직은 3.0%에 불과해 창업을 위한 경력이나 경험 기반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업 장애요인 인식)** 여성 창업자인 경우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대한 인식 비율이 남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패의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 부족을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여성기업의 어려움)** 여성 창업자는 경영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금조달과 판매선 확보 및 마케팅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기업인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여성 창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여성 기업인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제도는 자금지원제도와 세제지원제도로 나타났음. 이용 효과 측면에서는 기술지원제도와 정보화지원제도,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의 활용 효과가 가장 높은데 비해 판로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나. 중앙 창업정책의 성별 수혜 현황 및 여성기업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 성인지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17.3%였으나, 2017년에는 23.0%로 여성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화 지원금 비율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창업기금자금 융자 지원)** 2011년 창업기금자금융자 지원사업의 여성 참여율 13.2%, 예산 금액 비율 12.5% 였으나, 2017년에는 여성참여율 13.8%, 예산 금액 비율은 14.1%로 큰 변화는 없었음. 앞서 사업화 지원에 여성 참여가 늘어났음에도 융자 금액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제조업과 같은 투자가 필요한 기술 기반형 창업 영역의 여성 참여가 저조하거나 또는 실제 자금을 융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지원 사업의 2011년 여성 참여율

은 14.8%였으나, 2014년에 11.7%로 크게 낮아진 후 2015년에는 16.9%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15.3%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인지원법에 따라 해마다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2018년 5월 24일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선도대학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50억 지원 및 여성 예비 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원 추정) 등이 신설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 여성위원 충원이나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증액 등이 이루어졌음.

다. 경기도 창업정책의 성별 수혜 현황 및 여성창업 지원

- **(경기도 창업정책의 성별 수혜 현황)**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 중 패키지 형태의 대표적인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인 G프로젝트 사업의 여성 참여율은 35.1%, 예산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큰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의 여성참여율은 11명 중 4명으로 비율로는 36.4%, 예산 비율은 36.8%로 나타났다. 사업 모두 여성 참여 비율이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2017년 여성 참여 비율이 23.0%였던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창업정책의 성별 수혜 현황)** 2018년 여성창업지원사업의 주요 변화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 센터에 여성창업보육과 관련한 모든 단계의 창업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예비 창업자를 발굴 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지원 공간인 꿈마루, 초기창업자 지원이 가능한 창업보육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3년 이상 여성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이 가능한 POST-BI를 운영하게 됨. 또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에 남부센터에서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던 여성 전용 개방형 창업지원 사업인 꿈마루가 남부 2개소, 북부 3개소로 확충되고, 경기도 여성능력본부 남부센터가 꿈마루 운영의 허브 기능을 추진하게 됨.

3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여성 참여 실태조사 결과

가.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

- (인력운영 현황) 조사 참여 기관 중 20개 미만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 42.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규모차이를 반영하듯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창업매니저 1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26.5%로 나타났음. 행정사무직이 별도 배치된 경우는 18.4%에 불과했으며, 응답한 49개 기관 중 여성 창업매니저가 있는 기관은 38.8%로 나타났음.
- (여성입주자 인센티브) 응답기관 중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기관은 65.3%였으며, 대부분은 가점형태로 기관별로 최대 10점, 최저 1점, 평균적으로는 4.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입주 및 입주연장 심사 위원회 여성 비율) 창업보육기관 운영 시,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85.7%, 입주연장심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71.4%로 나타남. 입주기업 선정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기관은 35.7%였으나, 입주기업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은 1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입주연장 심사 위원회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 위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기관은 전체 응답 기관 중 40.0%로 나타났으나 전체 활동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은 1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여성대표자 입주기업 현황

- (여성대표자 현황) 조사에 참여한 창업보육기관의 전체 입주 기업은 877개이며, 그 중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20.5%(180개)로 나타났음. 본 조사에는 여성대표자 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전체 기업에서 여성기업을 제외한 남성 및 공동대표 기업과 비교 분석하였음.
- (여성대표자 전공) 여성대표자의 전공을 보면, 공과 및 이과 전공자 비율이 27.7%로 나타나며, 예체능 비율은 19.2%로 나타남. 이 결과는 2017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서 예체능 계열 전공자 비율이 17.2%로 창업보육기관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 조사와 거의 유사

한 비율인 반면, 공학 및 자연, 의학계열을 모두 합친 비율이 16.1%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이들 분야와 관련해서는 창업보육기관을 통해 창업에 이르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여성대표자 업종)** 여성기업의 경우 제조업 50.6%, 서비스업 31.1%, 정보처리, 바이오 디자인 등의 업종이 18.3%로 나타났음. 그런데 여성기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생활용품제조업이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기타 서비스업이 89.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분야가 전체의 59.5%에 달해 남성에 비해 특정 업종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다.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 성과

- **(창업과정 및 단계)** 창업기간별 전체 입주기업 분포를 보면, 여성기업은 3년 이상 기업이 23.4%에 불과한데 비해, 남성 및 공동 대표 기업은 5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입주기간별로 보면, 여성기업은 남성 및 공동 대표 기업에 비해 1년 미만 기업이 51.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입주 연장 신청 비율이 낮거나 또는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에 아니면 입주 연장 심사에서 여성 기업의 탈락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됨.
- **(입주기업 성과)** 수출경험이나 투자유치, 상장은 창업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여성 기업이 남성 및 공동 대표 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남성 및 공동대표 기업과 여성 기업이 각각 기업 당 평균 1.5건, 1.6건으로 거의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창업과정에서 추가 지원이나 자금 용자를 받는데 용이한 벤처 인증의 경우 남성 및 공동 대표 기업 중 27.0%의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으나, 여성 기업은 15.0%에 그치고 있음.

4. 창업보육기관 창업 매니저 조사 결과

가. 창업매니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여성기업지원 사업 인지 및 연계 경험과 효과 인식) 여성기업 지원 사업 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88.9%),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86.7%), 여성창업경진대회(77.8%)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연계 경험은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여성기업 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36.7%)라고 응답했음.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실태조사에서 판매선 확보와 마케팅 관리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도 일치함.
-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창업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인식)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순위 응답 결과 46.9%는 여성 창업자들이 판매/마케팅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음. 이 결과는 앞서 여성기업 지원 사업 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응답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
- (여성창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차이) 창업 매니저들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계는 판매/마케팅(38.8%)과 사업화/상업화(24.5%)단계라고 응답했으나, 사실상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시제품 제작/상품화 단계(36.7%)와 사업화/상업화 단계(26.5%)라고 응답했음. 즉, 여성창업자들에게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판로/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줌. 다만 이러한 서비스 부족이 기관이나 창업매니저 역량 부족의 문제인지, 단순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성공적인 여성 창업을 위한 핵심 요인에 대한 인식)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창업매니저들의 응답 1순위 결과는 경영 및 마케팅능력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이라는 응답이 각각 26.5%로 나타났음. 그러나 1순위와 2순위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판로 확보도 38.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창업 매니저들의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1순위와 2순위 복수 응답 결과, 여성친화분야 전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창업 전문가 추가 지원이 44.9%, 창업보육센터의 여성친화환경조성이 40.8%로 나타났으나, 가점 확대(22.4%)와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운영(24.5%)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 창업매니저 FGI 및 면접 조사 결과

- **(창업보육센터 운영상의 특성과 어려움)** 창업보육센터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와 한정된 자원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입주기업보다 ‘될 것 같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스타기업 배출 등에 대한 성과를 요구받게 되는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토로함. 결과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서비스 역시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창업보육센터와 여성창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선정 시 여성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은 실질적으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여성 입주자를 확대하고자 해도 기술 기반 창업 여성이 많지 않고, 입주 신청이나 문의를 하는 여성 기업들의 주요 업종과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 창업자 특성에 대한 인식)** 여성창업자들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와 관련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막연한 성공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부업정도로 생각하는 경향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창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투자가 아닌 지출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안 내용) ① 수입이 없는 상태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자뿐 아니라 여성 창업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 ② 기술창업 기업들이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R&D 지원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여성 전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사업 운영을 제안하였음. ③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1:1 밀착지원을 실시하고, ④ 특히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기간과 사업지원, ⑤ 사업 마인드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음.

5.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 제언

가. 연구결과 논의

1) 여성창업자의 젠더 특성과 과제

- (여성의 창업 도전) 여성들도 창업을 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리한 취업 여건을 피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창업에 도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도전이나 혁신, 기업가 정신으로 대변되는 창업에 대한 정의와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다른 데서 오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따라서 여성들의 관심이 높고, 창업 도전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 성공적인 여성 창업 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지원 모델이 요구됨. 한편으로 막연한 창업 기대와 도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됨.
- (기술기반 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창업 주변화 현상) 창업 정책은 혁신과 도전의 영역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라 창업보육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방식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여성 창업 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가점을 주는 방식이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식도 여성 창업의 저변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창업자 확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실상은 성별과 상관없이 사업화 성과와 성공 가능

성에 대한 기준이 입주 선정에 가장 핵심 기준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가점제와 여성전용 할당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이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 없이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창업자의 특성과 성공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특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젠더 차이에 따른 여성 창업자 특성)** 전공분야의 성별 차이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기술기반 또는 고부가가치 창업 분야인 공학 및 의학계열의 여성 창업자 비율이 남성 창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서비스업종의 창업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정 생활용품제조업이나 디자인 등의 업종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여줌. 또한 창업 장애요인 인식에 있어서 여성 창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7.3%p),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 경험의 부족(5.6%p),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7.1%p)에 대한 항목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뿐 기존의 사업 지원 방식과 동일한 일괄적인 유형보다는 여성 창업자들의 관심과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특정 분야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2)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와 과제

- **(창업보육기관의 특성과 여성 창업지원 가능성)** 창업매니저들은 면접이나 설문조사 결과 여성 창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이와 관련해 앞서 창업보육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보육기관에 여성 창업자 입주자 비율은 20% 남짓이지만, 입주 한 여성 기업은 전체 여성 창업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과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 창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 측면에서도 수출경험, 벤처 인증이나 지식재산권 취득 면에서는 여성 입주 기업 전체의 규모가 작고 여전히 남성 기업에 비해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여성 기업은 창업보육기관 입주 기업 중 1, 2년차 창업 기업과 입주기간이 2년 미만 기업 비율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하고 있

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입주 기간을 늘려 이들이 보다 더 생존 가능한 형태의 기업으로 졸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창업보육기관의 특성과 여성 창업지원 한계)** 그러나 현재 창업보육기관을 통한 여성 창업 활성화는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술 중심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여성 창업자 규모가 작고, 한편으로 기술력이나 향후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입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창업을 하려는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창업 환경에서 여성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과 향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려가 모두 필요함. 이와 관련해 창업보육기관 창업매니저들이 인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안한 내용을 참조해 보면, 여성 창업자들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사업모델로까지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 중심 창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창업보육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나. 경기도 여성창업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1) 창업희망 여성의 저변 확대와 필터링 기능 강화

“ 창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여성 누구라도 찾고 싶은 「꿈마루」를 지향하되,
창업성공을 위한 사전 점검 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

- **(꿈마루를 여성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운영)**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여성창업을 위한 열린 공간인 ‘꿈마루’ 지원 사업의 목표를 여성창업 저변 확대에 설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창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내 여성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창업에 대한 막연한 성공기대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전 조사 기능 강화)** 창업에 도전하기 위한 자신의 태도와 아이템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 시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생산적이지 않은 창업 실패 경험을 최소화 하고, 한편으로 향후 사업화를 위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시간을 제공함.

2) 여성 창업 경쟁력 분야 여성창업지원 모델 구축

“여성 창업 다수 분야 또는 여성 창업 경쟁력 분야 중심 여성 특화 창업지원 모델 구축”

-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주로 창업에 도전하는 업종을 보면, 남성과 차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혁신형 창업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세부 업종을 유형화 하여 여성 창업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창업보육기관이나 정부, 또는 경기도의 창업지원 사업은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근간으로 추진되거나 소상공인 창업지원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성 창업 분야에 대한 사업화 과정에서 현재 지원되는 창업지원 사업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별도의 제한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쟁에서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생활 속 경험 기반 제조업 창업지원 사업 지원 모델’이나 ‘소자본 창업의 기술 및 디자인 연계 창업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여성이 선호하고 강점을 나타내는 창업 분야를 정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을 배치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여성창업 허브 기능 강화

“여성창업보육기관 자체 운영 가능 외에 타 창업보육기관 입주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 수행”

-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량개발 1팀과 2팀에서는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용인에 위치한 역량개발 1팀은 꿈마루나 창업보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창업과 관련한 준비나 의지가 있는 초기 창업 여성들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창업 매니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여성 입주기업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참여나 사전 협의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역량개발 2팀은 꿈마루와 소점포 창업과 관련한 체험형 창업보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점포 창업은 소상공인 지원 영역이긴 하지만, 정부는 IT와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미용업이나 숙박업 등도 벤처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창업보육기관 입주도 가능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역량개발 2팀이 소재한 의정부 시설 인근에 디자인과 콘텐츠를 결합한 제조업 중심의 창업을 지향하는 창조허브가 위치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창업지원 여건을 고려한 여성 창업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이들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특화 사업 추진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역량 개발 실전형 프로그램, 입주기업 1:1 멘토링 지원 사업 추진”

- (여성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연구 결과 여성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출시 가능한 수준의 제품 개발까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나,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되,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과 도전 경험이 있거나, 사업지원 기간 한정으로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경우 등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 다음으로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거나 컨설팅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고, 홍보, 디자인 분야의 기 창업한 여성 기업이 여성 창업기업의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함. 이러한 방식은 기 창업한 여성 기업에게는 판로를 확보해주고, 사업화 단계를 지나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와 같은 비용 지출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직접 지원 외에도 마케팅이나 판로개척과 관련한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업자가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피드백해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마케팅 역량 개발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은 별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여성 기업의 특성과 필요한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1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화 지원)** 끝으로 여성입주 기업에게는 입주와 함께 1:1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업지원서비스 형식으로 창업 초기 아이템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현실적인 감각과 결국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모델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고, 향후 비전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1:1 밀착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 지원 방식은 창업보육기관 추천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기업 모집과 선정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다만 추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스스로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밀착 지원을 통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5
가. 여성기업 실태 및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5
나. 여성창업 특성에 관한 연구	7
3. 연구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및 절차	10
4. 연구결과 해석의 유의점 : 간접조사 방식에 따른 한계	13

제2장 여성 창업 및 창업정책 현황

1. 여성 창업자 및 여성 창업기업 특성	17
가. 여성의 창업 욕구	17
나. 여성 창업자의 인적 특성	18
다. 여성 창업자의 창업 과정	19
2. 창업 및 여성창업 정책 현황	24
가. 중앙 정부	24
나. 경기도	31
3.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현황	36
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 51개소	38
나.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41
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경기 문화창조허브	42

제3장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여성참여 실태조사 결과

1.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	47
-----------------------	----

가. 일반 현황	47
나. 여성기업 인센티브 및 위원회 운영 현황	48
2.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 현황	50
가. 입주기업 대표자 인적 특성	50
나. 입주기업 일반 현황	53
3. 여성대표자 입주기업 성과	56
가. 입주기업 창업 과정	56
나. 입주기업 창업관련 주요 성과	58
4. 소결	60

제4장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창업매니저 조사 결과

1.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	65
가. 여성기업 지원 사업	65
나. 입주형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67
다. 향후 여성 창업에 대한 인식	70
2.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FGI조사 결과	73
가.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매니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73
나.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창업지원 기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	77
다.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창업자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	79
라.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창업 지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82
3. 소결	83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논의	87
가. 여성창업자의 젠더 특성과 과제	87
나.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와 과제	90
2. 경기도 여성창업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92

가. 창업희망 여성의 저변 확대와 필터링 기능 강화 :	92
나. 여성 창업 경쟁력 분야 여성창업지원 모델 구축	94
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여성 창업 허브 기능 강화	95
라.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특화 사업 추진	96
참고문헌	99
부 록	101

표 목 차

<표 1-1> 여성 기업 실태조사	5
<표 1-2> 지자체 여성창업 관련 연구	6
<표 1-3> 창업보육기관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간담회 및 서면검토	11
<표 1-4> 입주형 창업보육기관 현황조사 및 창업보육 매니저 인식조사 개요	12
<표 1-5>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FGI	13
<표 2-1> 남성 및 여성 창업기업의 창업 시 소요자금 조달방법(복수응답)(2014-2016) ..	21
<표 2-2> 여성 기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2017)	23
<표 2-3> 2018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24
<표 2-4> 2018년 여성 창업지원 사업 현황	29
<표 2-5>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계획(주요 신설 및 지원강화 내용)	30
<표 2-6> 2017년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31
<표 2-7> 2017년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성별 예산 및 수혜자 현황(2017년 기준) ...	32
<표 2-8>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 사업	34
<표 2-9> 2017년 취·창업역량강화 부문 여성창업 관련 사업실적	36
<표 2-10> 전국 창업보육센터 수	38
<표 2-11>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현황	39
<표 2-1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41
<표 2-13> 경기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	42
<표 2-14> 클러스터 운영현황	43
<표 3-1> 조사 참여 기관 일반 현황	47
<표 3-2> 기관 규모 및 인력 운영 현황	48
<표 3-3> 입주기업 선정 시 여성기업 인센티브	49
<표 3-4> 운영 위원회 규정칙 및 상시 운영 여부	49
<표 3-5> 운영 위원회 위원구성	50
<표 3-6> 입주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51
<표 3-7> 입주기업 대표자 전공별/학력별/창업직전 직업별 분포	53

<표 3-8> 입주기업 업종별 분포	55
<표 3-9> 입주기업 기업형태별 분포	56
<표 3-10> 입주기업 고용인원	56
<표 3-11> 입주기업 창업과정 분포	58
<표 3-12> 입주기업 창업과정 분포	59
<표 3-13> 입주기업 성과(지식재산권)	60
<표 4-1>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연계 경험	66
<표 4-2>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여성기업지원사업	67
<표 4-3>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창업매니저의 인식	68
<표 4-4> 창업지원 단계별 여성창업 지원 필요성 및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69
<표 4-5>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방안	70
<표 4-6> 향후 여성창업자 증가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71
<표 4-7> 성공적인 여성창업의 중요요인 인식	72

그림목차

<그림 2-1> 취창업 희망자의 연령별 창업 의향 (2015)	17
<그림 2-2> 창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 (2015)	17
<그림 2-3> 창업자 성별 연령별 분포 (2017)	18
<그림 2-4> 창업자 성별 전공별 분포 (2017)	18
<그림 2-5> 창업자 성별 창업직전 취업 상태 및 미취업 유형 (2017)	19
<그림 2-6> 창업자 성별 근무직종 (2017)	19
<그림 2-7> 창업지원사업 참여 경험 (2017)	20
<그림 2-8> 창업지원사업 유형 비교(복수응답) (2017)	20
<그림 2-9> 협력제휴 경험 여부 (2014-2016)	20
<그림 2-10> 창업 시 소요자금 (2014-2016)	20
<그림 2-11> 여성 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2017)	22

<그림 2-12> 여성 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애로 분야 (2017)	22
<그림 2-13> 창업자 성별 창업 장애요인 인식 (2017)	23
<그림 2-14>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수혜자 (2011-2017)	27
<그림 2-15> 창업사업화지원 예산 (2011-2017)	27
<그림 2-16>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수혜자 (2011-2017)	28
<그림 2-17> 창업기업자금(융자) 예산 (2011-2017)	28
<그림 2-18>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수혜자 (2011-2017)	28
<그림 2-19>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흐름도	37
<그림 2-20>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기관유형별)	38
<그림 2-21>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지역별)	38
<그림 3-1> 입주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51
<그림 3-2> 여성기업 대표자 실제 대표 역할 수행 여부	51
<그림 3-3> 입주기업 대표자 인적특성	52
<그림 3-4>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54
<그림 3-5> 입주기업 기업형태별 현황	55
<그림 3-6> 창업기간별 입주기업 분포	57
<그림 3-7> 입주기간별 입주기업 분포	57
<그림 3-8> 성장단계별 입주기간 분포	58
<그림 3-9> 입주기업 창업관련 주요 성과(수출, 투자, 상장)	59
<그림 3-10> 입주기업 창업관련 주요 성과(기업인증)	59
<그림 4-1>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및 연계 경험	65
<그림 4-2> 여성기업지원사업 중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	67
<그림 4-3>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창업매니저의 인식	68
<그림 4-4> 창업지원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필요성 및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	69
<그림 4-5>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방안	70
<그림 4-6> 여성창업자 증가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71
<그림 4-7>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72
<그림 4-8> 창업보육 입주졸업기업 성과 사례집	74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결과 해석의 유의점 : 간접조사 방식에 따른 한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창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량 실업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위기가 가장 고조된 시기로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의 벤처창업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최대 과제였다. 따라서 창업정책은 정부 주도의 기술 중심 창업 활성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도입되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중심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창업보육 대상이 확대되는데 문화콘텐츠나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지식 산업 중심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IT 기술 혁신과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식과 정보 접근 가능성이 특정 전문가 중심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됨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는 물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들어섰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창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크게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창업과 관련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창업친화적인 사회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GEM, 2013), 여성들에게는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과 ‘기업가 정신’은 중립적인 개념 같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위험에 대한 감내, 사업 아이디어를 포착해내는 전략적 사고 등에서 젠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 창업의향은 19.8%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제기업가정신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원숙연, 2017), 한국은 비교 국가인 미국, 영국, 스웨덴에 비해 창업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특히 기회인식과 문화적 지원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창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성 정책 또한 본격화되던 시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기

업'을 별도로 구별하고, 이들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실시되면서 여성창업관련 정책과 여성 창업 및 여성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김영옥·이승현·이선행, 2016).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여성기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심의를 마친 후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여성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은 창업정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전달체계는 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중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16개 광역시·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통합되었으나, (전)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 IT·CT 전문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술기반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 창업보육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북부비전센터 역시 직업훈련교육과 함께 여성창업보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지원 플랫폼인 꿈마루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5월 현재 의정부, 화성, 양주에 꿈마루가 개소하였고, 고양시에 개소될 예정으로 경기도에 총 5개의 여성 창업을 위한 공유 공간이 구축 운영되게 된다. 또한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입주형 창업보육 사업인 경기도 벤처창업지원센터 중 1개소를 1년에서 3년 미만 여성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중심의 새일센터 사업에 창업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옥·이승현·이선행(2016)은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연구」에서 새일센터의 경우, 여성창업자 발굴,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창업관련 정보와 정책DB를 구축하고 창업지원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위해 '여성창업보육전문가' 배치 및 창업카페 등 협업공간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창업 정책은 여전히 기술 중심 창업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방식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창업 단계별 어려움을 고려한 창업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한편으로 미약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보육기관이나 주요 창업지원 사업의 성격과 여성 참여 실태 파악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공형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 창업 정책 현황을 토대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창업지원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여성기업 실태 및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1) 여성창업 및 기업 실태 조사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관련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기업 백서와 여성기업 실태조사가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국내 여성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정책 발굴 및 향후 육성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며(여성기업 실태조사, 2015), 여성기업 백서는 여성창업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기업 정책지원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여성기업백서, 2015). 다만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역별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표 1-1〉 여성 기업 실태조사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주기 (최근발행 연도)	연구기관
여성기업 실태조사 (표본 4,0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경영활동 사항 및 성과 - 인사노무관리, 교육 및 연수 - 여성기업인 특성 및 애로사항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여성기업 관련 제도, 창업관련 문항 등 	격년 2017 여성기업 실태 조사 (2018년 2월 발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여성기업 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여성기업 동향 -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격년 2017 여성기업 백서 (2018년 2월 발간)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중 합지원센터

2)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창업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성의 지식기술창업(양현봉 · 박종복, 2014), 1인창조기업(김선화 · 남기남, 2013), 협동조합(김복태 외, 2014; 이인제 외, 2013) 등 특정 분야의 여성 창업 활성화 연구와 여성기업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양인숙, 강민정, 2012)나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 연구(김영옥 외, 2016) 등이 추진되었다. 그 외에 창업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이정섭 외, 2016, 신선미 외, 2016)를 통해 창업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지자체 차원의 여성창업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창업지원 거버넌스 연구, 특정 산업이나 유형의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 특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지역의 여성관련 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 활용의 한계와 여성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표 1-2〉 지자체 여성창업 관련 연구

분야	연구명	지역	연구기관
실태조사	-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정책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손기영 외, 2009
	- 전라북도 여성창업실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전북	전북연구원 조경옥, 2008
	- 제주지역 여성 창업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제주	제주여성가족재단 고지영, 2017
거버넌스	- 서울시 여성창업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김창연 외, 200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광주광역시 여성창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광주	광주여성재단 김현아 전진희, 2012
인프라	- 경기도 여성특화 창업지원플랫폼 운영 모델 개발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2015
	- 강원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 모색	강원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허목화, 2017
	- 여성 공예창업 활성화 지원기관 운영방안 연구	서울	서울여성가족재단 국미애, 2016

분야	연구명	지역	연구기관
특정 산업 및 분야	- (농업)6차 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	김종철, 2015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협동조합)경북형 여성협동조합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명화, 2015
	-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라북도 여성소상공인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전북	전북연구원 김수은 외, 2016
	- (1인 기업) 전문직 여성프리랜서 경력개발 지원 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외, 2011

나. 여성창업 특성에 관한 연구

1) 여성창업 동기

우리나라는 창업친화적인 환경이 아니며, 여성 창업의 경우 도전과 창업기회와 관련한 동기 요인이 아닌 필요에 따른 동기 요인이 우세하다(이정섭 · 이미순 · 이선희, 201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성창업 동기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지만(김영옥 · 이승현 · 이선희, 2016), 여전히 여성들은 생계형이나 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적 일자리, 또는 기존 임금노동시장에서 연령이나 경력단절에 따른 진입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윤선 · 남승연, 2015).

창업은 자금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위험에 대한 감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보다 더 미래 지향적인 도전이 요구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창업 의향은 19.8%로 OECD 주요국인 미국(43.3%), 호주(39.7%), 독일(36.5%), 영국(34.0%), 일본(32.6%)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OECDScience(2011),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여성가족부(2016), 『창업지원정책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재인용). 국제기업가정신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원숙연, 2017),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창업 의향이 낮은 이유는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그 이유가 일부 드러나는데, 한국은 비교 국가인 미국, 영국, 스웨덴에 비해 창업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특히 기회인식과 문

화적 지원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여성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시장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혁신 및 도전 정신과 그에 따른 창업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와 같은 창업 정책과 창업 생태계 안에서 여성들의 창업은 배제와 비주류,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서비스 영역의 창업 비율 증가로만 이어질 위험이 높다.

2) 여성창업의 젠더 특성

여성에게 불리한 창업 환경은 창업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그나마도 창업 생태계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이호숙, 2015; 원숙연, 2017).

이호숙(2015)은 기업가는 독립적, 적극적, 활동적이고, 변화를 지향하고, 위험부담을 각오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는 공정함, 합리성, 대담함, 결단력, 적극성, 결과 지향적인 자세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 기업인은 목표가 낮고, 전문성이 약하고, 비합리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기업과 기업가 정신이 남성 중심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통용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성별화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구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희(2013)는 혁신하는 정신으로 정의되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도 여성 기업가 정신은 다루어지지 않거나 몰성적인 영역이 되면서, 여성을 ‘타자’로 묘사하고 남성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표준적인 가치로서 남성의 경험을 재생산 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연구는 뛰어난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이거나 여성기업 육성정책과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성별 차이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여성들이 창업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장애요인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기업인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숙연(2017)은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 창업 환경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젠더관점과 국제비교를 통한 탐색적 연구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교 대상국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젠더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창업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여성창업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부정적 기대와 젠더 유형화는 여성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창업 활동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요인 중 남성중심 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우려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창업지원 정책의 양적 확대 접근만이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창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 접근에서도 기존에 여성들이 주로 접근해온 저부가가치 업종과 생계형 창업활동 위주의 창업이 아닌 여성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분야인 디자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션 등의 분야의 성공모델 구축과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창업가 집중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양인숙·강민정, 2012; 중소벤처기업부, 2014; 원숙연 2017 재인용). 끝으로 우리 사회의 성별 분업화된 역할 구조에서 여성들이 처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취업여성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창업과도 연계하기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인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창업자의 특성과 중앙 및 경기도 창업지원정책과 창업보육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우선 경기도 여성의 창업 욕구를 살펴보고, 전국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창업자의 인적 특성과 창업 과정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경기도 창업보육관련 인프라 현황과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운영현황 및 여성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창업보육기관 운

영 중 여성창업 관련 지원 현황 및 여성 창업자의 창업보육기관 입주현황과 관련 사업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입주형 창업보육센터의 일반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입주 및 지원자 선정 위원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017년 기준 여성 기업별 대표자 인적 특성과 기업 현황과 창업지원 사업 수혜, 성과를 파악하였다.

셋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입주형 창업보육센터의 창업매니저가 인식하는 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인식과 여성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입주형 창업보육기관 중 여성 입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여성 친화 직종을 주력분야로 표시한 기관의 창업 매니저 FGI 나 면접을 통해 여성 창업자 특성과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 향후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성 창업자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경기도 여성창업보육 정책 환경 분석과 입주형 창업보육센터의 여성 참여자 실태 조사 결과 및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여성 창업자 특성에 대한 창업매니저의 인식 및 경험 분석을 토대로 입주형 창업보육센터의 여성창업 활성화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여성 특화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나. 연구방법 및 절차

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범위 설정과 지역 창업보육 정책과 관련한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창업보육사업 현황을 검토하였다. 창업기업 및 여성창업의 주요 내용(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지원정책 요구, 창업동기, 창업성공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와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2) 실태 조사 설계를 위한 창업지원기관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서면검토

조사 범위 선정과 자료 수집 협조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 1팀 과장, (재)여성종합지원센터 경기

센터 팀장,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장 기관 센터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창업 및 여성창업 관련한 사업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전간담회와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창업보육센터 검색 기능과 시스템 인력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토대로 조사 가능한 범위를 선정하고, 1차 문항을 개발하였다.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간담회를 실시하고, 창업보육센터 현황조사표와 설문문항 1차 초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유형별 조사 대상 기관 실무자의 서면 검토 후 확정하였다. 이후, 현황조사를 위한 웹조사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시험 조사를 거치며, 최종 수정을 완료하였다.

〈표 1-3〉 창업보육기관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간담회 및 서면검토

구분		내용
1차	전문가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논의 - 도내 창업 및 여성창업 관련 사업구조 및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도내 창업보육사업운영 기관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장 -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 과장 - (재)여성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팀장 -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장
2차	서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현황 및 여성기업 실태조사 설문 초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조사대상 기관유형별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부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장 -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클러스트 총괄센터장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1팀 사업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 경기과학기술대학교창업보육센터 매니저

3) 입주형 창업보육기관 현황조사 및 창업보육 매니저 인식조사

도내 전문적인 창업보육지원사업에서 여성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입주형 창업보육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80개소를 대상으로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 및 여성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80개 기관의 창업매니저(기업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였으며 조사기간

은 2018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51개소가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현황조사 및 기업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센터 현황 및 입주기업과 여성기업 참여현황,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창업보육기관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의 <표 1-4>과 같다.

<표 1-4> 입주형 창업보육기관 현황조사 및 창업보육 매니저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입주형 창업지원 기관 한정 : 80개 기관 • 센터 총괄책임 매니저 	
대상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51개소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15개소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8개소 • 경기문화창조허브 5개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개소 	
조사 내용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일반현황(센터 및 기관 유형, 소재지, 주력분야) • 센터 운영현황(보육실 개수, 기자재, 위원회, 인력, 지원사업, 등) 	기관 현황 조사
	입주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입주 기업 현황(기업수, 대표자 성별, 업종, 종업원 수 등) • 센터 입주 여성 대표자 기업별 조사 (대표자 인적사항, 기업특성, 창업단계 및 성과 등) • 창업보육기관 여성대표 입주기업별 현황 	
	여성창업자 지원 경험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기업 특성 • 창업보육사업의 여성창업지원 효과성 인식 • 여성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 	매니저 인식 조사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및 조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Web 조사	

4) 창업보육기관 창업 매니저 FGI 실시

여성기업이 2개 이상 입주한 창업보육기관 중 여성입주자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여성친화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창업매니저 FGI를 실시하였고, 일부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 면접하였다.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집단면접에서 논의될 사안을 정리

하여 사전에 배포한 후 의견이나 생각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다. 면접은 각 집단별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매니저 관련 일반질문(경력, 관련자격증, 창업매니저 입문계기)과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역할과 실제 주로 담당하게 되는 업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들의 특성 및 여성 입주자들의 차별적 특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1차 FGI에서는 창업보육센터 현황 파악을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표 1-5>와 같다.

<표 1-5>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FGI

구분	일시	참석자	비고
1차 FGI (6인)	2018. 4. 11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6인	설문문항 초안검토
2차 FGI	2018. 5. 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사업 담당자 3인	조사대상 미포함 결정
3차 FGI (2인)	2018. 5. 15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2인	여성친화 분야
4차 FGI (3인)	2018. 6. 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매니저 3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분야
방문면접 (3인)	2018. 4. 26	고양(동국대학교)창업보육센터 매니저 3인	여성기업 최다

4. 연구결과 해석의 유의점 : 간접조사 방식에 따른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창업정책과 관련 사업이 중앙, 경기도, 시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정책 초기부터 추진되어 온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여성 창업지원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사업을 하는 기관 운영 현황과 입주 여부 선정과 관련한 가점이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입주 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보다는 창업보육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 매니저를 통해 기업 지원 실적과 입주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업별 현황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기업 전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입주 기업수가 적은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현황표를 작성토록 하였다. 따라서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과 남성 대표자 입주기업을 비교하기 위해 전체에서 여성 대표자 기업 사례를 제외한 수치로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남성 기업 및 공동대표 4개 기업을 여성 기업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도내 창업보육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창업보육센터는 BI-net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과 기업별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현황조사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현황조사표 역시 창업매니저 매뉴얼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조사에 포함된 타 기관 중에는 현황조사에 포함된 항목과 관련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학력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무응답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현황 조사 결과 분석표에 무응답 사례수와 비율을 제시하고, 그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분석한 후, 관련 내용을 별도 표시하였다.

끝으로 창업보육기관 매니저를 통해 여성 대표자 입주 기업에 대한 특성과 여성 창업과 관련한 정책 요구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창업매니저의 관점과 젠더관점에 따른 해석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석에 유의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성 창업 환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 2 장

여성 창업 및 창업정책 현황

1. 여성창업자 및 여성 창업기업 특성
2. 창업 및 여성창업 정책 현황
3.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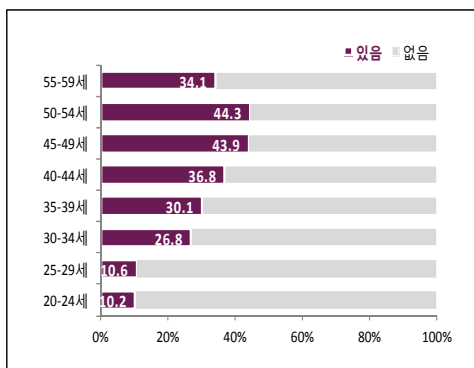
1. 여성 창업자 및 여성 창업기업 특성

가. 여성의 창업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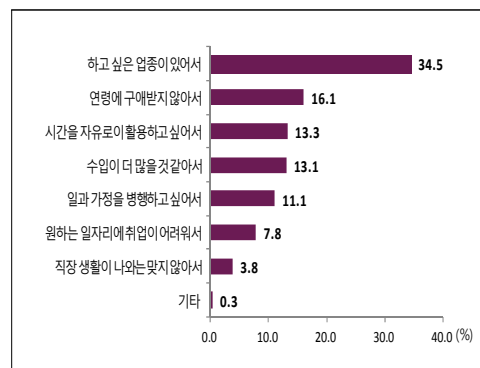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가족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가중되고, 노동 현장의 성 차별적인 구조로 인해 경력단절 위기를 맞게 되고, 그에 따라 임금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성별 격차도 좁혀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의 성 격차는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상황이며, 이러한 특성은 창업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창업 의향은 19.8%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림 2-1〉은 경기도에서 2015년에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603명의 연령대별 응답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p<0.0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대 여성들의 창업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창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창업 동기 외에는 취업시장의 불리한 조건인 연령차별이나 일자리 자체의 부재에 따른 대안,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일·가정양립 필요성 등에 따른 대안적 선택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취창업 희망자의 연령별 창업 의향 (2015)



〈그림 2-2〉 창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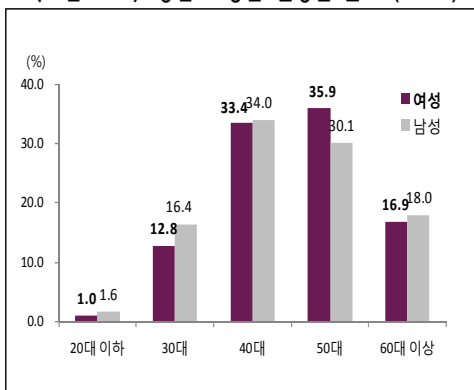
자료: 최윤선 남승연 (2015), 「경기도 여성의 취업욕구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위와 같은 결과는 사실상 기업이 정신이라고 표현되는 창업의 도전 정신과는 다른 이유에 따른 선택으로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한 개인의 대처과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하려는 여성 규모가 커지는 현상뿐 아니라 그 이유와 동기,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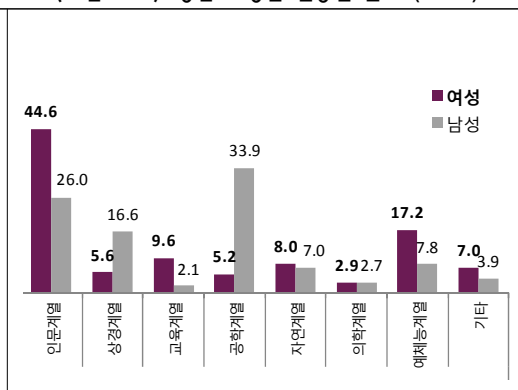
나. 여성 창업자의 인적 특성

2017년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4, 50대 창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30대 창업비율이 낮고, 50대 창업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별로는 여성의 경우 인문계열 전공자 비율이 4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체능 계열이 17.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인문계열 전공 비율이 높는데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창업자의 전공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창업자 성별 연령별 분포 (2017)



〈그림 2-4〉 창업자 성별 전공별 분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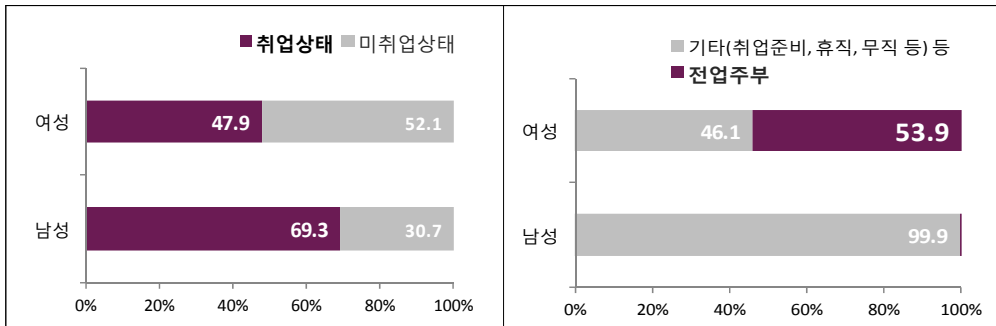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8.2),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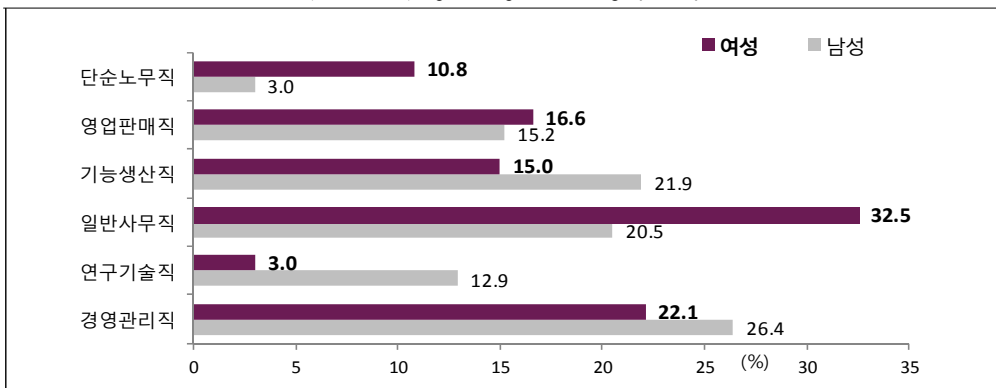
남성 창업자 중 69.3%는 창업 직전 취업상태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47.9%만이 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 53.9%가 전업주부로 있다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창업자들은 여성과 비교해 기능 생산직(21.9%) 및 연구 기술직(12.9%), 경영관리직(26.4%)의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일반 사무직 종사 비율이 32.5%로 가장 높고, 기능 생산직은 15.0%, 연구 기술직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경력, 특히 연구나 기술 기반형 창업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창업자 성별 창업직전 취업 상태 및 미취업 유형 (2017)



〈그림 2-6〉 창업자 성별 근무직종 (20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8.2),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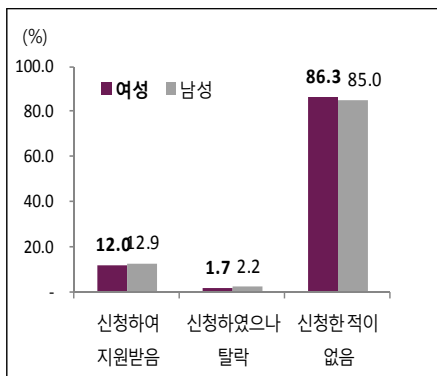
다. 여성 창업자의 창업 과정¹⁾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경험에 대한 7년 이내 창업 기업의 응답 결과, 남성은 85.0%, 여성은 86.3%가 참여한 적이 없었다.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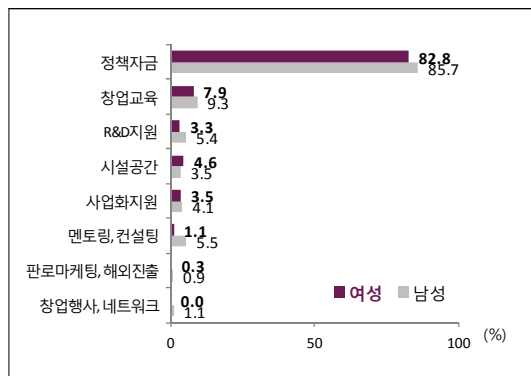
1) 본 절의 내용은 김영환 · 오지선(2017.1.1.)의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의 P.7의 <표 2>와 <표 3>을 참조하였으나 자료는 「2017년 창업기업실태조사」와 「2017 여성기업백서」 자료로 재구성하여 기술하였음.

우가 남녀 모두 80%를 넘었으며, 그 외에는 참여 경험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창업 교육, 컨설팅 등 대부분의 사업에서 남성의 참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창업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와 관련해서는 잘 몰라 서라는 응답(44.3%)과 자체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36.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2018).

〈그림 2-7〉 창업지원사업 참여 경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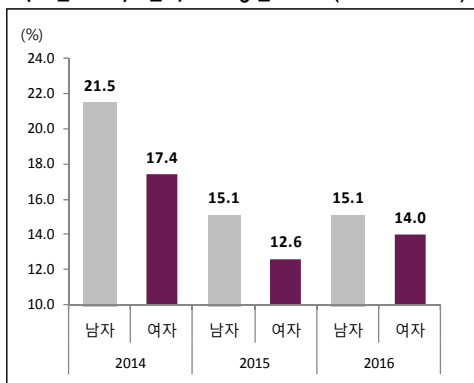
〈그림 2-8〉 창업지원사업 유형 비교(복수응답)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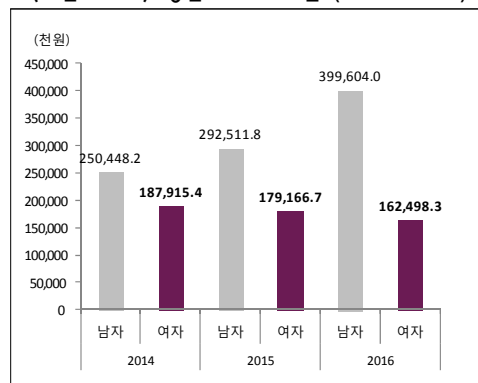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8.2),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그림 2-9〉를 보면, 여성 창업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경험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시 소요자금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의 창업 소요자금 규모는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협력제휴 경험 여부 (2014-2016)



〈그림 2-10〉 창업 시 소요자금 (2014-2016)



자료 : Kosis.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실태조사」(2014~2016)

창업에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자금 조달이다. <그림 2-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은 창업 시 자금조달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자금 조달 경로에서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1> 참조). 그런데 2014년 자료에서는 여성 창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9.4%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6년에는 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9.7%를 나타내고 있고, 남성 창업자들의 대출 비중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기업가들이 자금 조달 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환·오지선, 2017).

〈표 2-1〉 남성 및 여성 창업기업의 창업 시 소요자금 조달방법(복수응답) (2014-2016)

(단위 : 천원 %)

구분		자기자금	개인간 차용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정부 융자 및 보증	엔젤 및 벤처캐피탈	은행 및 비은행 대출
2014	남성	78.7	5.7	0.1	1.4	0.5	13.6
	여성	82.2	6.5	0.5	1.1	0.3	9.4
2015	남성	95.2	16.4	2.9	4.7	1.9	30.0
	여성	94.8	16.3	2.6	5.7	0.2	26.9
2016	남성	91.8	19.3	2.1	3.5	1.1	31.8
	여성	92.4	21.3	2.6	3.7	0.1	29.7

자료: (구)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7.4),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주 1) 자기자금: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을 제외한 창업자 본인이 보유한 현금 및 부동산

2) 개인간 차용: 자기자금,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을 제외한 타인(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용

3) 정부 출연보조금: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으로 지원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무상증여 방식의 정부자금 지원

4) 정부 융자보증: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 및 이를 위한 보증서발급 지원 등의 정부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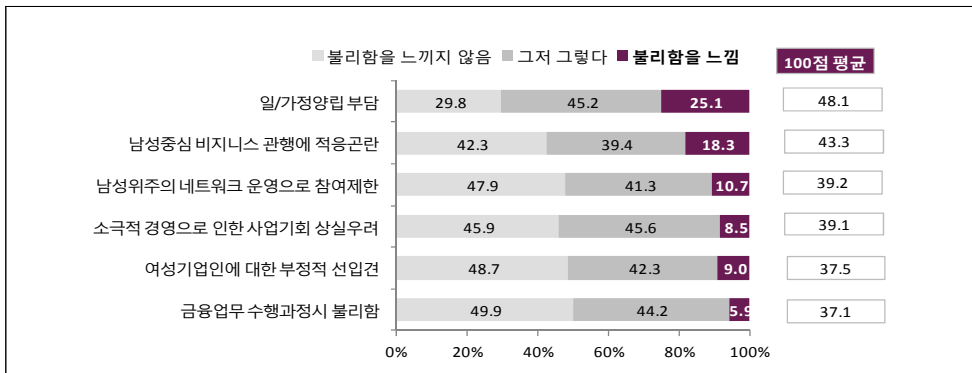
5) 엔젤·벤처캐피탈 투자: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및 엔젤·엔젤클럽으로부터의 개인투자

6) 은행·비은행 대출: 은행(시중은행, 지역은행, 특수은행 등)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대출

7) 주식·회사채: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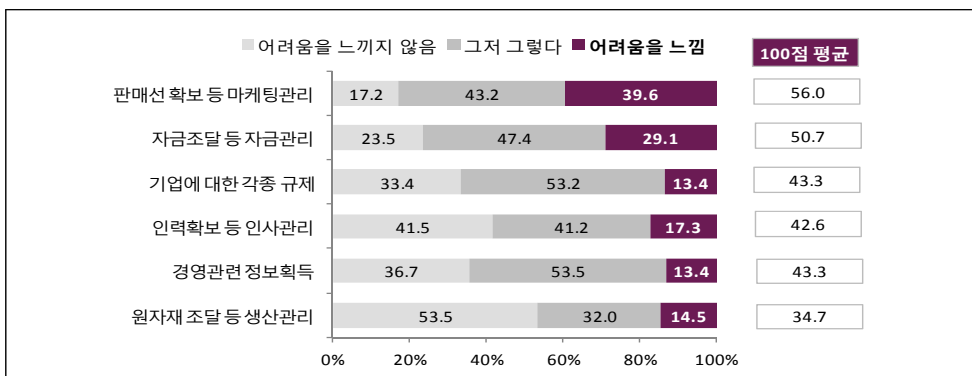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 부담과 남성 중심의 사업관행으로 인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영과 관련해서도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여성 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20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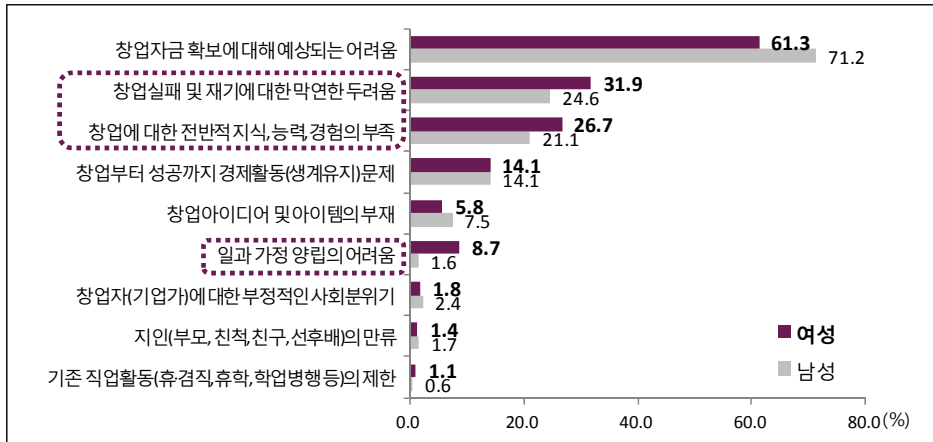
〈그림 2-12〉 여성 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애로 분야 (20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창업자들의 창업 장애 요인과 관련해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 부족, 창업과정의 생계유지 문제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에 대한 인식 비율이 남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패의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 부족을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3〉 창업자 성별 창업 장애요인 인식 (20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8.2),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여성 창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여성 기업인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제도는 자금지원과 제도와 세제지원제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용 효과 측면에서는 기술지원제도와 정보화지원제도,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의 활용 효과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판로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여성 기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2017)

(단위 : %)

정부정책 인지도 및 평가	인지비율	이용비율	이용효과
자금지원제도	67.9	13.6	85.0
인력지원제도	63.9	4.9	80.3
세제지원제도	64.1	6.7	80.1
기술지원제도	49.5	1.2	91.3
판로지원제도	45.0	7.0	75.4
정보화지원제도	41.3	1.1	92.3
수출지원제도	39.9	1.2	90.0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38.1	0.9	92.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 창업 및 여성창업 정책 현황

가. 중앙 정부

1) 창업정책 및 성별 수혜현황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야별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부, 농림식품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에 따라 학생이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교육부, 그리고 지적재산 관련하여 특허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창업지원 사업 중 자금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 <표 2-3>는 금융지원 사업을 제외한 2018년 운영 예정 사업 현황으로, 창업 지원 사업 영역은 크게 사업화 지원, R&D,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킹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과 여성창업경진대회 2가지로 나타났다.

<표 2-3>의 2018년 창업지원 사업을 보면, 영역별로 많은 창업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이내 39세 이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이나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나 기술 기반 창업자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패키지 형태로 사업화 자금이나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기술 창업 이외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아이템이나 향후 가능성을 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창업지원 사업은 대개 7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표 2-3>을 보면, 지원 사업을 업력으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경우, 7년 이하로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8개 사업이며, 3년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는 15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2018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부처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사업화>				
•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 창업진흥원	500	중기부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부처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진흥원 등	76	중기부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창업팀 중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진흥원	284	중기부
• 상생서포터즈 사내 창업 프로그램	• 사내벤처팀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100	중기부
• 스마트벤처캠퍼스	• 만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124	중기부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청년(39세 이하)과 중장년(40세 이상) 간 팀을 구성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127.8	중기부
• 창업선도대학 육성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선도대학	895	중기부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만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540	중기부
•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 창업 후 7년 이내 여성벤처기업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6	중기부
•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6	중기부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 (신규)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2	중기부
• 제도전 성공패키지	•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진흥원	150	중기부
• 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글로벌진출지원)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창업진흥원	39	중기부
	• (외국인창업)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① 외국인, ② 재외동포, ③ 귀환 유학생 중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3	중기부
•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대학(원)생 및 교원	• 한국연구재단	8	교육부
•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대학(원)생 및 교원	• 한국연구재단	16	과기부
• K-Global ICT 제도전 패키지 지원	• 재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2	과기부
• K-Global Startup 공모전	• ICT분야 창업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과기부
•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내법인 및 ICT유망 창업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과기부
•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지원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9	과기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82	고용부
•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공모·사업화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14	문체부
•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 한국관광공사	21	문체부
• 농산업체 판로지원	• 농식품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6	농식품부
<R&D>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	2,727	중기부
• 제도전 기술개발	• 재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8	중기부
•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 사업(R&D)	• 창업 및 벤처 최초 인증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	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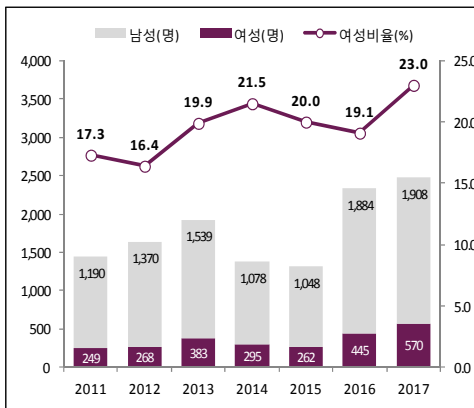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부처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초·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 초·중·고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6.7	중기부
• 대학기업가센터	• 대학생, 교수 등	• 대학	19	중기부
• 창업대학원	• 창업학 석사과정 희망자	• 창업대학원	7	중기부
• 메이커 문화 확산	• 모든 국민	• 한국과학창의재단	87.2	중기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9.7	중기부
• 스마트창업터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90	중기부
•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교육)	• 산업·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청년	• 한국과학창의재단	18	중기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유형)	•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286	교육부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 중학생(또는 13~16세)	• 한국발명진흥회	9	특허청
<시설·공간·보육>				
• 메이커스페이스구축	•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 한국과학창의재단	235	중기부
• 창업보육센터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보육센터	155	중기부
• 창업보육센터 지원(건립지원사업)	• 창업보육센터	•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51	중기부
• 시제품 제작처 운영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지방중소기업청(경기, 대구, 광주, 부산, 전북)	27	중기부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만 40세 이상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지자체 및 대학	47.4	중기부
•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5	중기부
•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376.6	중기부
•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창업 7년 미만 기업	• 창업진흥원	61	중기부
•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지원	• 대학생, 창업자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	8.6	과기부
•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운영	• 출판 분야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	문화부
• 농촌현장 창업보육	• 창업 후 5년 이내 농식품기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	농식품부
<멘토링·컨설팅>				
•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모든 국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8	중기부
• 멘토역량강화 지원	• 창업멘토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4	중기부
• K-Global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 ICT 유망 중소·벤처 기업이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과기부
• K-Global 창업멘토링	• ICT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9.9	과기부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비용지원	• 창업 후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8	농식품부
• 농식품벤처창업 인턴제	• 농식품 벤처창업이 가능한 아이템과 의지를 지닌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벤처기업협회	3.1	농식품부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부처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 IP 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및 개인	• 지역지식재산센터	36.4	특허청
• IP 나래 프로그램	• 기술기반 창업기업	• 지역지식재산센터	55.8	특허청
<행사·네트워크>				
• 벤처창업페스티벌	•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 창업진흥원	4	중기부
• 대한민국 창업리그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진흥원	14	중기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5	중기부
• 여성창업경진대회	• 창업 후 2년 이내 여성기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9	중기부
•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 농식품 분야 창업 5년 이내 (예비)창업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2	농식품부
•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 전 국민		11.1	특허청
계			7,796.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2018.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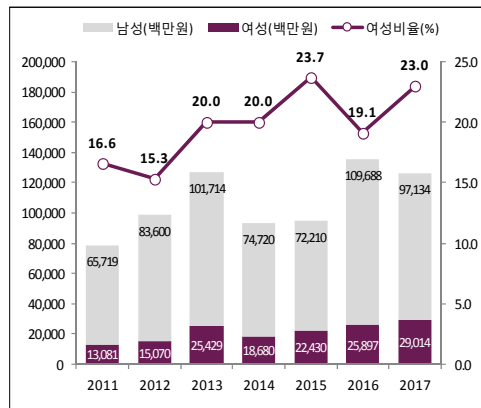
성인지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17.3% 였으나, 2017년에는 23.0%로 여성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화 지원금 비율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4〉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수혜자 (2011-2017)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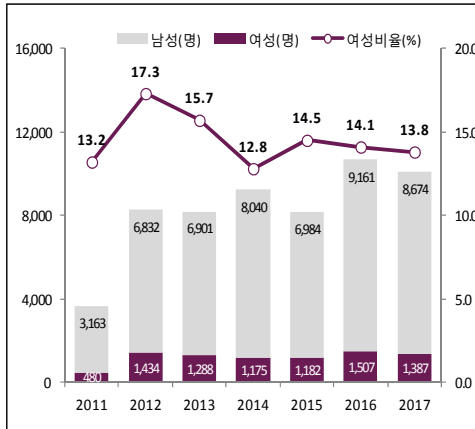
〈그림 2-15〉 창업사업화지원 예산 (2011-2017)



이와 함께 2011년 창업기금자금용자 지원사업의 여성 참여율은 13.2%, 예산 금액 비율은 12.5% 였으나, 2017년에는 여성참여율 13.8%, 예산 금액 비율 14.1%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화 지원에 여성 참여가 늘어난 것은 창업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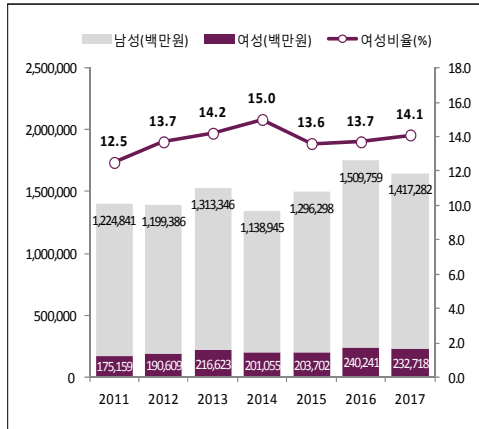
여가 높지만, 제조나 기타 사업 투자가 필요한 기술 기반형 창업 영역의 여성 참여가 저조하거나 또는 실제 자금을 용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로 고도화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2-16〉 창업기업자금(용자) 사업수혜자 (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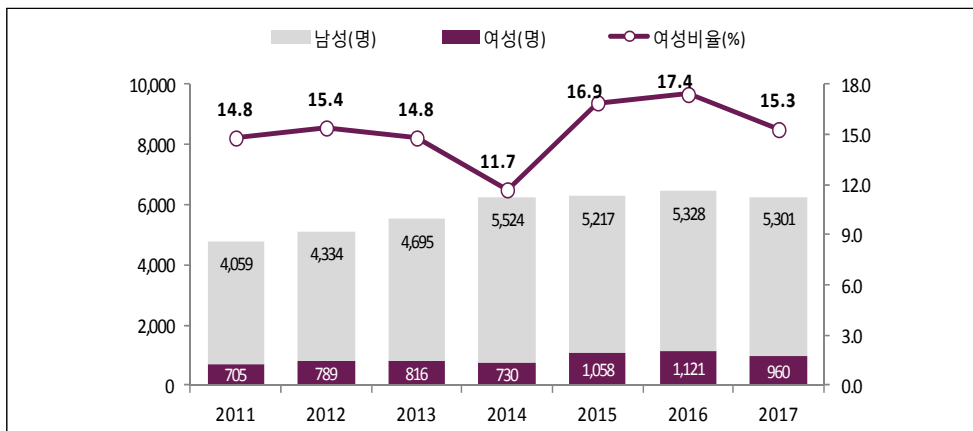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DB.

〈그림 2-17〉 창업기업자금(용자) 예산 (2011-2017)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지원 사업의 2011년 여성 참여율은 14.8%였으나, 2014년에 11.7%로 크게 낮아진 후 2015년에는 16.9%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15.3%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수혜자 (2011-2017)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DB.

2) 여성창업정책 및 사업 현황

중앙정부의 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역시 중소벤처기업 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사업은 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중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17개 지역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창업지원사업을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영역을 포함하되, 지역별로 창업보육센터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창업자 발굴 및 대회 참여를 위한 예선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 창업 기업 및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 기업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상법상 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은 여성의 기술기반 창업 촉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 사업 추진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2018년 여성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17개 지역센터 255개 창업보육실 운영	•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입주시설: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각종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 등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 등
• 여성창업경진대회	• 12개팀	•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및 포상(1인 최대 상금 1,000만원 이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제공, 선배 여성 기업인과의 네트워킹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IP) 획득, 홍보물제작(영상, 브로셔 등) 마케팅, CI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등

사업명	주요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30명 내외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전국 16개 권역 운영	•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분야별 전문가)이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무료 상담 -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 경영 분야 애로사항 - 기술,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 수출/외환, 해외마케팅 등 해외 수출 분야 애로사항 - 벤처, 투자 등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 경영애로사항
• 여성CEO MBA 교육	• 16회 여성 CEO 500	• 여성경영자 대상 분야별 전문 교육 실시	- 분야별로 16회 교육 개최 - 분야별 경영실무(마케팅, 재무, 경영전략 등) - 분야별 협상스킬 교육(커뮤니케이션 및 사업협상전략 등) - 네트워크 프로그램(워크숍 및 성공기업 방문)
• 여성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 CEO 1,000명	• 전국 여성 CEO 간 경험 및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 전문가 초청 강연, 정책토론회,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 TV홈쇼핑 판매 지원	• 여성기업 200개	•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 지원	- 홈쇼핑 입점 교육 및 전문가 코칭 -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1).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인지원법에 따라 해마다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선도대학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50억 지원 및 여성 예비 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원 추정) 등이 신설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 여성위원 충원이나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증액 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계획(주요 신설 및 지원강화 내용)

구분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선도대학 내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50억원) 및 여성 예비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원, 추정) 등 신설 • 여성 청년인재 확보를 위해 3년간 청년지원금(자산형성) 1,080만원 지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정) •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5,000억원, 기보, 보증료보증비용 등 우대)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특별방송’ 신설(아임쇼핑 협업)

구분	내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 추가 조성('18년 100억원, '19~'22년 매년 200억원) • 여성전용 R&D 100억원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금융·수출 지원 우대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8.5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1.2조원, 16.4% 증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 5. 24).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 계획 확정'

나. 경기도

1) 창업정책 및 성별 수혜현황

2017년 기준 경기도 창업지원사업은 4개의 국비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26개 사업 총 34,8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창업지원 플랫폼인 꿈마루 지원사업과 여성창업교육센터 운영 및 여성창업지원 사업이 있다.

〈표 2-6〉 2017년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단위: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6개 사업	7,445	34,876	2,707	26,755	5,414
1. G-NEXT(게임산업육성) 추진	281	2,500	-	2,500	-
2.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지원	100	210	-	210	-
3.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47	2,000	1,000	400	600
4. 경기도 Co-op 협동조합설립육성	12	1,000	-	1,000	-
5.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800	3,000	-	3,000	-
6. 경기도대학생융합기술창업지원	154	850	-	850	-
7.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구축 및 운영 등	650	4,500	-	2,500	2,000
8. 경기벤처창업센터운영지원	29	2,600	-	2,600	-
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지원	350	2,100	-	2,100	-
10.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63	2,000	1,000	1,000	-
11. 기술이전창업지원	14	300	-	300	-
1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50	1,456	653	423	380

세부사업명	목표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3.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25	2,900	-	2,000	900
14. 사회적경제창업지원	70	712	-	537	175
15. 섬유가구디자인창작공간조성	12	880	-	440	440
16. 슈퍼맨창조오디션	20	300	-	300	-
17.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여성창업지원	64	68	-	68	-
18. 창업기업글로벌사업화지원	11	500	-	500	-
19. 창업후계농업인교육(육성)	107	97	54	43	-
20. 창업베이스캠프운영	21	650	-	650	-
21.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3,234	1,313	-	394	919
22. 창업프로젝트추진	213	2,200	-	2,200	-
23. 청년해외역직구창업지원	32	550	-	550	-
24. 푸드트럭 사업지원(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	11	390	-	390	-
25. 플레이엑스포 개최	225	1,500	-	1,500	-
26. 협동조합설립 및 지원	750	300	-	300	-

자료 : 고용노동부, 경기도(2017. 12). 「경기도 지역고용실천전략」

〈표 2-7〉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 중 여성 및 여성관련 예산 비율 파악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표다. 패키지 형태의 경기도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인 G프로젝트 사업의 여성 참여율은 35.1%, 예산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큰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의 여성참여율은 11명 중 여성이 4명으로 비율로는 36.4%, 예산 비율은 36.8%로 나타났다. 두 사업 모두 여성 참여 비율이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2017년 여성 참여 비율이 23.0%였던 것에 비해 약 1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2017년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성별 예산 및 수혜자 현황(2017년 기준)

사업명	사업 수혜자(명)			예산(백만원)			사업내용	운영기관 및 담당부서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1. 창업베이스캠프운영지원	2,286	1,747	539	650			베이스캠프 개방형 공간 이용 (신규회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벤처본부

사업명	사업 수혜자(명)			예산(백만원)			사업내용	운영기관 및 담당부서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20	10	10	225	114	111	사업화지원금 (아이템 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홍보·마케팅비)	창업지원팀
3. 창업프로젝트	191	124	67	1,598	1,110	488	사업화지원금 (아이템 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홍보·마케팅비)	
4.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39	20	19	245	145	100	전자상거래 교육 및 판매지원 (배송료 및 수수료 지원)	
5. 기술이전 창업지원	11	7	4	228.5	144.5	84	사업화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기술사업화센터
6.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지원	10	9	1	300	270	30	사업화 지원	

자료 : 각 운영기관 내부자료

2) 여성 창업정책 및 사업 현황

경기도 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 아래 역량개발 1팀(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과 역량개발 2팀(전, 경기 북부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부는 용인에 위치한 일자리재단 여성능력본부 역량개발1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며, 북부는 의정부에 위치한 일자리재단 여성능력본부 역량개발2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남부와 북부 모두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보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남부의 경우, 여성 IT·CT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술기반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사업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용인시 예산을 지원받아 창업보육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해 여성 프리랜서, 창업준비자,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6월 경기도 남부 꿈마루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 10월 화성시, 11월 경기 북부 꿈마루와 양주시 꿈마루가 개소하였으며, 2018년 고양시에 개소할 예정이다. <표 2-8>는 2018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여성 창업지원 사업이다.

〈표 2-8〉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남부	여성창업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IT·CT전문 교육과정: IT·CT분야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지원 찾아가는 창업교육: 소상공인 창업자금 연계 및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관심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준비교육 지원
	여성창업 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CT를 활용한 지식기반 분야와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분야 등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여성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영지원과 안정적 시장 진입 지원을 통해 여성 CEO를 양성 상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간: 1년(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사무공간: 1실 1업체 사용 사 용 료: (보증금) 500,000원, (월 관리비) 100,000원 신청자격: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여성기업 사업분야: 전자상거래, 모바일, 콘텐츠, 솔루션, e-learning 등 IT·CT를 활용한 지식기반분야 / BT, NT 등 첨단 유망 벤처기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분야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29㎡/9평), 인터넷망, 책상, 의자 등 컨설팅(특허, 경영 등) 지원, 경영평가 실시, 박람회 참가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등 업계동향 및 경영정보 제공, 자금알선, 기타 센터 편의시설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촉진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발굴하여 사무공간, 회의실,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 상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간: 1년(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 사무공간: 꿈마루 공용사무공간 신청자격: 타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으며 경기도 내 거주하는 1인 창조사업 창업예정 여성 /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창업 2년 이내 여성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제공 사무공간, 인터넷, 집기 및 복사기, 스캐너 등 공동사무기기 무상 이용 창업 네트워크 활동지원(단, 입주계약 이후 재단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1인 창조기업에 한함)
	경기남부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최초 여성특화 코워킹스페이스로 프리랜서, 창업자,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사무공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카페, 개방공유형 오피스, 회의실 및 미팅룸 등의 공간 무료 제공 창업교육, 창업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 상품촬영 스튜디오 등 제공
	POST-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3년 이상 여성기업의 사후 지속성장을 위해 네트워크 교류 및 사무공간 제공 상세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2년(연장없음) - 사무공간: 1실 1업체 사용 - 사 용 료: (보증금) 500,000원, (월 관리비) 100,000원 - 신청자격: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7년미만 여성기업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 정보 및 투자연계 정보 제공 - 사무공간, 인터넷, 집기 및 복사기, 스캐너 등 공동사무기기 무상 이용 - 창업네트워크 활동 지원
북부	여성창업 지원(준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아이템과 가능성을 가진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센터창업실(창업지원실, 창업준비실) 운영 • 상세내용: 창업지원실 - 입주자격: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여성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수 5명 이내의 경기도 북부지역 거주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2년 이내 소호기업을 영위한 여성 - 입주자선정 및 입주절차: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센터 및 운영위원들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 - 입주기간: 1년(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2회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사무실 공간,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제공(촬영실, 인터넷서비스, 강당) - 사 용 료: (보증금) 500,000원, (월 관리비) 70,000원 • 상세내용: 창업준비실 - 입주자격: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예비 및 창업 후 2년 이내 여성 - 입주자선정 및 입주절차: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센터 및 운영위원들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 - 입주기간: 6개월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사무실 공간,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제공(촬영실, 인터넷서비스, 강당) - 사 용 료: (보증금) 150,000원, (월 관리비) 25,000원

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정보 꿈수레 홈페이지 참조(2018. 2. 12 기준)

2017년 10월 기준 일자리재단이 추진한 여성 창업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창업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참여자 수, 꿈마루는 누적 회원수, 창업보육센터는 고용인원 수,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는 사업화 지원건수로 실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북부창업지원의 경우 다소 모호하지만 지원기업수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일자리재단은 POST-BI센터를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여성 창업자의 경우 일·가정양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업이 안

정화 되는 데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요하게 되지만(최윤선, 2015), 창업지원 사업은 사업자 신고 후 3년 이내 기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7년 미만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성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2017년 취·창업역량강화 부문 여성창업 관련 사업실적

(2017년 10월말 기준, 단위: 명, 건, %)

	사업명	지표	2016	2017 (10월말)	비고
	세부사업				
여성 창업 지원 사업	창업전문교육	교육수료자수	434	439	
	창업플랫폼(꿈마루)	회원수(누적)	2,918	4,000	
	창업보육센터	고용인원수	50	55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사업화지원건수	45	58	
	경기북부여성창업지원	지원기업수	14	18	
	POST-BI센터	고용인원수	-	27	신규

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2017. 11. 17). 「2017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3.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현황

입주형 창업보육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다. 2008년 창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창업보육센터가 지원하던 창업지원 사업들이 별도로 사업화되면서 창업보육센터는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매니저를 통해 상시적인 창업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초 기능에 비해 직접적인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창업보육센터는 오랜 기간 창업보육 사업을 해오면서 창업지원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고,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후 7년 이하 창업자에 대한 사업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기도 창업 정책과 사업 역시 그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데, 특히 경기도는 3년 이상 10년 이하 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산업 관련 창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총 15개소를 개소했으

며, 2018년 1월 판교에 추가 설치하여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9>는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흐름도인데, 기술창업 또는 기존에 ‘창업’ 이라고 할 때 주류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림 2-19〉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흐름도



출처: 창업베이스캠프 홈페이지.

정부는 2000년대 후반 기술 창업 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지식을 가진 자가 1인 창업 또는 제 3자가 아닌 가족이나 스승과 제자로 운영되는 도제기업 등을 포함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은 지식서비스분야의 창업지원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기업별로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보다는 개방형 공간과 일정한 공간에 1인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나 1인 창조기업도 기업 규모나 아이템에 따라서는 개별 공간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개방형 공간을 기본으로 하되, 입주형 공간도 일부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이며,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 내 운영되는 창업보육기관 인프라 현황을 정리하였다.

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 51개소

도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51개소로 전국 262개소의 약 19.5%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창업지원센터가 37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성남, 수원, 용인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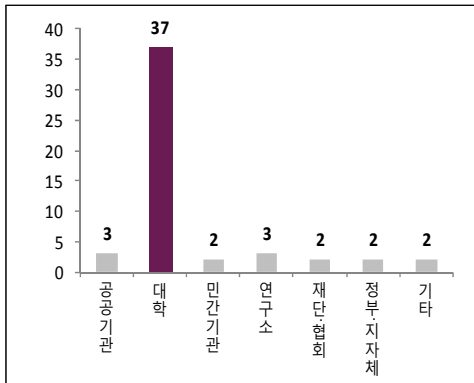
〈표 2-10〉 전국 창업보육센터 수

(2018년 1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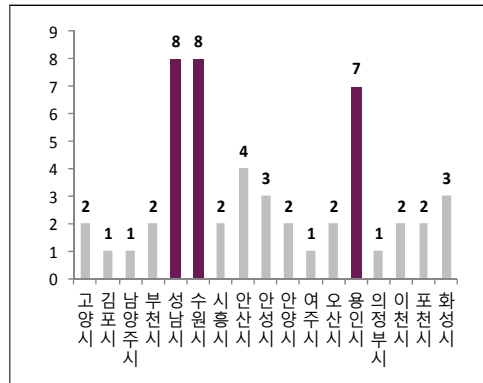
연번	시도	창업보육센터 수	연번	시도	창업보육센터 수
1	서울	33	10	울산	1
2	경기	51	11	대구	12
3	인천	5	12	경북	22
4	강원	14	13	경남	17
5	충남	15	14	전남	12
6	대전	14	15	광주	13
7	충북	15	16	전북	15
8	세종	2	17	제주	4
9	부산	17	합계		262

자료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센터검색「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

〈그림 2-20〉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기관유형별)



〈그림 2-21〉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지역별)



자료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센터검색「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 (2018. 01. 30 검색)

〈표 2-11〉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현황

(2018년 1월 30일 기준)

연번	시군	운영주체	기관명	센터명	주력보육분야
1.	고양시 (2)	대학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BT 창업지원센터	BT(줄기세포치료제, 천연물신약, u-Health기기, 기능성소재)
2.		대학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항공우주및기계분야, 전자및정보통신분야
3.	김포시	대학	김포대학교	김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지역개발사업, 예비창업자, 대학생(기창업자)
4.	남양주시	대학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등
5.	부천시 (2)	공공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천 창업보육센터	소재, 부품
6.		대학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BT/IT관련 산업
7.	성남시 (8)	대학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나노, 바이오, IT 등 첨단기술 분야
8.		대학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건의료기술관련분야
9.		대학	동서울대학교	동서울대학교창업보육센터	정보기술(IT)
10.		대학	신구대학교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CT, BT, IT
11.		민간기관	KTBN네트웍스(주)	KTBN인큐베이팅센터	지식서비스, 콘텐츠
12.		민간기관	벤처포럼파트너스(주)	투썸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 펀드
13.		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전기, 전자
14.			시너지아이비투자(주)	시너지 창업보육센터	바이오, 의료
15.	수원시 (8)	대학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반도체전자정보통신
16.		대학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창 업지원센터	농생명바이오
17.		대학	경기대학교	경기창업보육센터(경기대)	IT, BT, 디자인
18.		대학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디지털전자
19.		대학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BT / IT / NT
20.		재단·협회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정밀기기 S/W
21.		정부·지자체	수원시청	수원시 시니어창업보육센터	시니어창업
22.		정부·지자체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청)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 터	IT BT NT 등
23.	시흥시 (2)	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창업 보육센터	정밀/특소/요소기계, 전자/기계부품, 나노광학, 정밀화학, 환경기술
24.		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창업 보육센터	녹색성장 및 1인기업

연번	시군	운영주체	기관명	센터명	주력보육분야
25.	안산시 (4)	공공기관	중진공(안산)	중진공 안산 포스트BI	전자 및 무선통신, 반도체 관련산업
26.		대학	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기 개발
27.		대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전자부품등제조업
28.		재단·협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창업보육센터	IT, SW, IT/SW융합
29.	안성시 (3)	대학	한경대학교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환경, 바이오산업
30.		대학	중앙대학교	중앙대휴먼테크노창업보 육센터	생명자원분야
31.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글로벌 피어선 창업보육센터	ICT, 보건복지분야, 문화
32.	안양시 (2)	대학	연성대학교	연성대학교창업보육센터	전자전기통신
33.		대학	안양대학교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Health, Beauty, 정보통신, IoT
34.	여주시	대학	여주대학교	여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 도자기(향토산업), 농업ICT(6차산업)
35.	오산시 (2)	대학	오산대학교	오산대학창업보육센터	IT, 자동차
36.		대학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반도체, 제조업 분야
37.	용인시 (7)	공공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전자상거래, 콘텐츠비즈니스, IT등
38.		대학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디자인공예
39.		대학	용인송담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기계금형사출전기전자기타
40.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창업보육센터	전기, 전자 및 정보서비스
41.		대학	강남대학교	강남대창업보육센터	전기전자 IT
42.		대학	명지대학교	명지대창업보육센터(용인)	기계, 전기, 전자
43.		연구소	고등기술연구원	IAE창업보육센터	광섬유/광학요소/전자통신기기
44.	의정부시	대학	경민대학교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전기전자 등
45.	이천시 (2)	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문화콘텐츠 산업/디자인산업
46.		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 원) 공예디자인 창업보육센터	공예 디자인
47.	포천시 (2)	대학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의약, 바이오
48.		대학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화학, 전자, 기계
49.	화성시 (3)	대학	협성대학교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분야
50.		대학	수원대학교	수원대창업보육센터	전자/전기
51.		대학	수원여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T, 영상산업, 식품과학분야, 아동산업,

자료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센터검색「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2018. 01. 30 검색)

나.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성장단계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업무 공간·공용시설 제공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업개시 10년 이내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 및 공용시설·장비 등 제공(공용장비 및 회의실 등), 마케팅, 기술 상용화 등 센터 사업 연계, 상시 정보제공 및 밀착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입주규모 및 운영현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연번	구분	시군	개소일	전용면적 (㎡)	입주규모 (실)	창업공간 (1인 / 개방형)
17 개소						
1	기존	수원	2014.12	1,487	12	
2		고양	2001. 2.	1,958	19	
3		안양	2005. 4.	2,608	19	
4		의정부 1	2000. 11	1,140	13	
5	북부 (신규)	양주	2016. 11	5,229	40	1인 8석 / 개방형 14석
6		포천	2016. 10	120	개방형	1인 10석
7		남양주	2016. 6	1,087	9	
8		의정부 2	2016. 7	332	10	
9		구리	2016.12	576	6	1인 6석 / 개방형 6석
10		파주	2016. 9	215	개방형	1인 8석 / 개방형 12석
11	남부 (신규)	성남	2016. 12	716	13	
12		부천	2016. 12	876	12	1인 8석 / 개방형 12석
13		안성	2016. 12	1,090	15	개방형 18석
14		평택	2016. 11	236	10	
15		김포	2016. 12	1,053	12	
16		의왕	2017. 12	340	8	개방형 15석
17		성남(판교)	2018. 1	662	13	개방형 20석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2018. 5. 23),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운영현황 및 여성참여 실태조사 제출 자료 재구성

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경기 문화창조허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 지원,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의왕시, 고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에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표 2-13〉 경기도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

연번	유형	지역	주관기관	협력기관
1	공공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
2	공공	용인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
3	공공	용인시	경기도일자리재단	-
4	공공	안양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
5	공공	의왕시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6	공공	고양시	(재)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
7	공공	수원시	창업진흥원	-
8	공공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K-Start up 홈페이지(2018.05.2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보육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입주기업 지원역량 강화를 통한 입주기업 보육성과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실현하고자 15개 광역시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센터에서는 여성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양주시에 경기북부센터가 개소하였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 자금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경기 남부(성남시, 수원시)와 북부(의정부시), 서부(시흥시) 지역 4개의 허브를 운영 중이다.

〈표 2-14〉 클러스터 운영현황

연번	클러스터명	주요 내용	개소일	주력분야	입주기업 수
1	부천클러스터	로봇 등 4대 특화산업과 콘텐츠 융합 생태계 구축	2002.03.	로봇, 금형, 조명, 콘텐츠(만화, 영상 중심)	71개사(94개실)
2	관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콘텐츠 분야 창업선순환 생태계 조성	2014.05.	콘텐츠 창작, SW융합, 게임	37개사(37개실)
3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하이테크 기반 콘텐츠 산업육성 전초기지	2015.04.	VRAR산업(게임, 교육, 관광, 기타 응용분야 등)	17개사(18개실)
4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디자인과 이야기가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 구축	2015.06	제조, 디자인, 콘텐츠 융합	17개사(13개실)
5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메이커스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2018.01.	제조 기반 콘텐츠 융복합	9개(독립형) /40석(오픈형)

자료: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2018.05.23.)

꿈마루는 전국최초 여성특화 코워킹스페이스로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업공간이자 공용 사무공간이며 현재 경기남부(용인시), 경기북부(의정부시), 화성시, 양주시에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제 3 장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여성참여 실태조사 결과

1.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
2.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 현황
3.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 성과
4. 소결

1. 창업보육기관 운영 현황

가. 일반 현황

1) 응답기관 일반 현황

본 조사는 도내 80개 창업보육기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¹⁾

〈표 3-1〉 조사 참여 기관 일반 현황

(단위: 개소, %)

			사례수	비율
전체			49	100.0
창업보육기관 유형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		29	59.2
	경기도 벤처창업지원센터		15	30.6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4	8.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		1	2.0
운영기관유형	대학		22	44.9
	연구소		2	4.1
	지자체		1	2.0
	공공기관		23	46.9
	민간/개인사업체		1	2.0
지역분포	북서부 (4)	파주시	1	2.0
		고양시	1	2.0
		김포시	2	4.1
	북동부 (9)	의정부시	3	6.1
		포천시	3	6.1
		남양주시	2	4.1
		구리시	1	2.0
	동부 (2)	이천시	1	2.0
		여주시	1	2.0
	남부 (21)	성남시	2	4.1
		용인시	6	12.2
		오산시	1	2.0
		화성시	3	6.1
		수원시	6	12.2
		평택시	1	2.0
		안성시	2	4.1
	중부 (13)	의왕시	2	4.1
		안양시	4	8.2
		시흥시	2	4.1
		안산시	3	6.1
		부천시	2	4.1

¹⁾ 조사개요는 본문 제1장 서론(11~12쪽)에 기술하였음.

2) 창업보육기관 규모 및 인력 운영 현황

조사 참여 기관의 규모와 인력 운영과 관련한 일반현황을 보면(〈표 3-2〉 참조), 10개 미만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 8.2%, 10개 이상 20개 미만이 34.7%, 20개 이상 50개 미만이 44.9%, 50개 이상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는 기관이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차이를 반영 하듯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창업매니저 1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26.5%로 나타났으며, 6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된 기관은 4개 기관 8.2%로 나타났다. 행정사무직이 별도 배치된 경우는 18.4%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관 49개 기관 중 여성 창업매니저가 있는 기관은 38.8%로 나타났다.

〈표 3-2〉 기관 규모 및 인력 운영 현황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사례수	비율
전체		49	100.0
입주가능 기업 수	10개 기업 미만	4	8.2
	10 ~ 20개 기업 미만	17	34.7
	20-50개 기업 미만	22	44.9
	50개 기업 이상	6	12.2
인력 운영	1인	13	26.5
	2-3인	15	30.6
	4-5인	17	34.7
	6인 이상	4	8.2
여성창업매니저 채용 유무	유	19	38.8
	무	30	61.2
행정사무직 배치 유무	유	9	18.4
	무	40	81.6

나. 여성기업 인센티브 및 위원회 운영 현황

1) 입주기업 선정 시 여성기업 인센티브 여부

응답기관 중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기관은 65.3%였으며, 대부분 가점형태로, 기관별로 최대 10점, 최저 1점, 평균적으로는 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입주기업 선정 시 여성기업 인센티브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계	비율
전체			49	100.0
인센티브 여부	없음		17	34.7
	있음		32	65.3
	인센티브 내용	기타	4	12.5
		가점	28	87.5
		평균	4	
		최대	10	
		최소	1	

2) 운영위원회

창업보육기관은 입주기관 선정이나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응답 기관 중 입주기업 선정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85.7%, 입주연장기업 선정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

〈표 3-4〉 운영 위원회 규정칙 및 상시 운영 여부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센터 수	비율
전체			49	100.0
입주기업 선정	규정규칙 있음		42	85.7
	상시여부	상시	15	35.7
		비상시	27	64.3
	규정규칙 없음		7	14.3
입주연장 심사	규정규칙 있음		35	71.4
	상시여부	상시	12	34.3
		비상시	23	65.7
	규정규칙 없음		14	28.6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내 외부 위원 비율은 대략 50:50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주기업 선정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기관은 응답 기관 중 35.7%, 입주기업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연장 심사 위원회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 위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기관은 전체 응답 기관 중 40.0%로 나타났으나 전체 활동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은 1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권고하고 있는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여성 평가위원 30% 층원 방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표 3-5〉 운영 위원회 위원구성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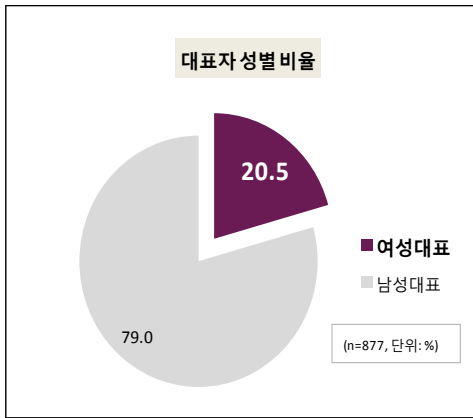
구분		기관		위원	
		기관수	비율	위원수	비율
입주기업 선정	위원구성 계	42	100.0	242	100.0
	여성위원	15	35.7	29	12.0
입주연장 심사	위원구성 계	35	100.0	184	100.0
	여성위원	14	40.0	26	14.1

2. 여성 대표자 입주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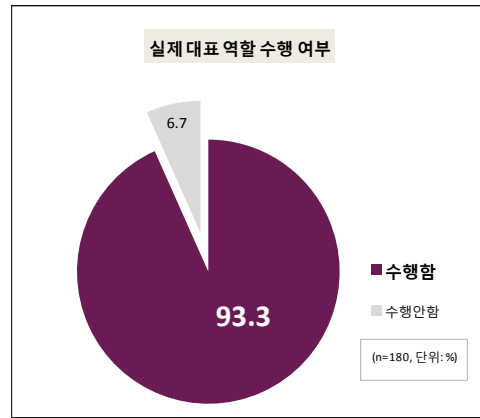
가. 입주기업 대표자 인적 특성

응답 기관에 입주한 877개 기업 중 남성 및 남녀공동대표를 제외한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180개로 총 20.5%로 나타났다. 창업지원 기관 및 창업매니저 간담회를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해 명목상 여성이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대표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 엄밀한 조사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명목상만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180개 여성 기업 중 6.7%는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림 3-1〉 입주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그림 3-2〉 여성기업 대표자 실제 대표 역할 수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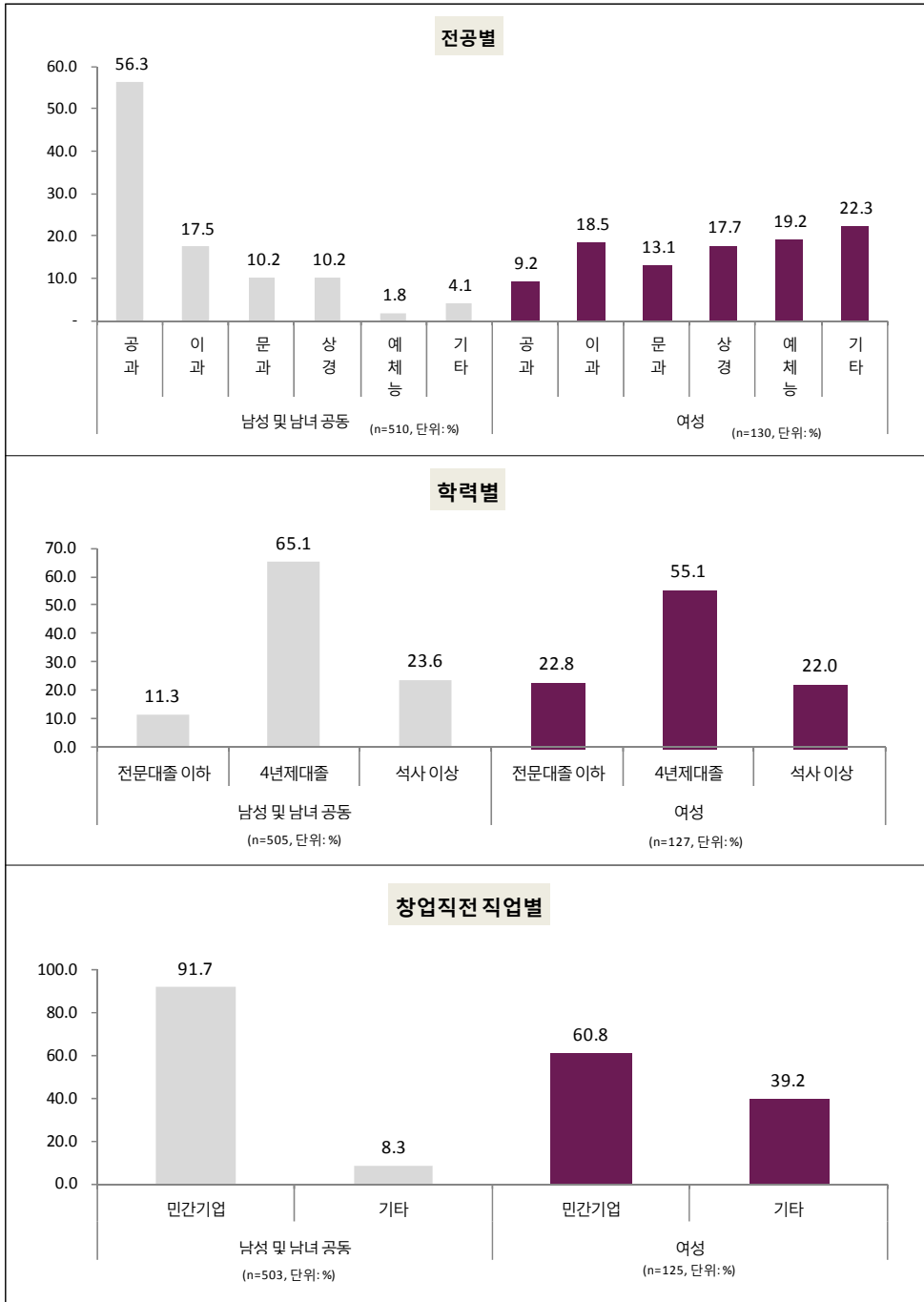
〈표 3-6〉 입주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율
전체	877	100.0
남성	693	79.0
남녀 공동	4	0.5
여성	180	20.5
- 대표역할 수행함	168	93.3
- 수행안함	12	6.7

입주기업 대표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입주기업 중 56.3%는 공과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대표자만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예체능 19.2%, 이과 18.5%, 상경 17.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입주기업 대표자들의 전반적인 학력별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창업 이전의 직장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간기업 경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민간 기업 이외 기타 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입주기업 대표자 인적특성



〈표 3-7〉 입주기업 대표자 전공별/학력별/창업직전 직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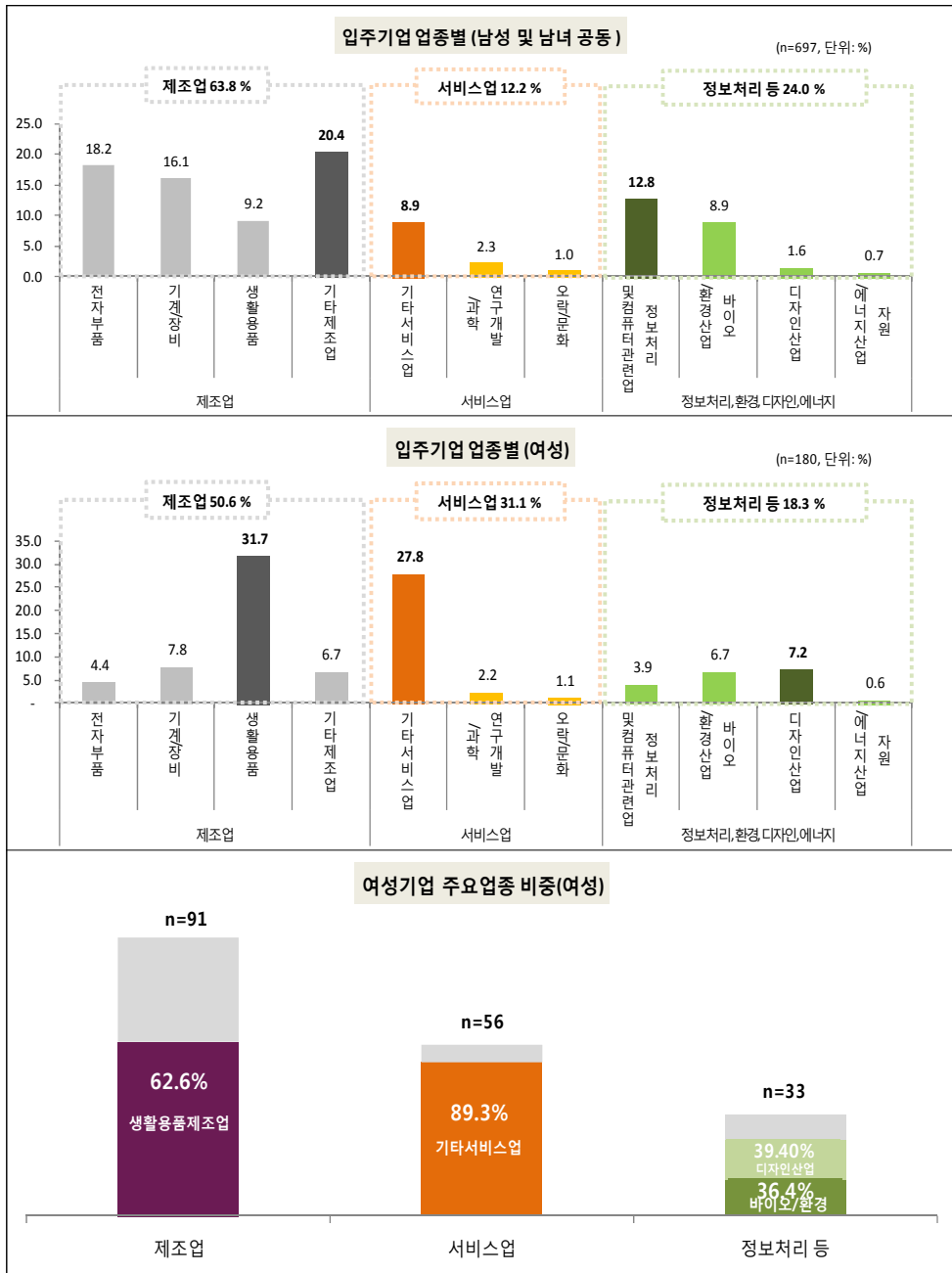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697	100.0	180	100.0
전공별	소계	510	73.2	130	72.2
	공과	287	56.3	12	9.2
	이과	89	17.5	24	18.5
	문과	52	10.2	17	13.1
	상경	52	10.2	23	17.7
	예체능	9	1.8	25	19.2
	기타	21	4.1	29	22.3
	관련 자료 없음	187	26.8	50	27.8
학력별	소계	505	72.5	127	70.6
	전문대졸 이하	119	23.6	28	22.0
	4년제대졸	329	65.1	70	55.1
	석사 이상	119	23.6	28	22.0
	관련 자료 없음	192	27.5	53	29.4
창업직전 직업별	소계	503	72.2	125	69.4
	민간기업	461	91.7	76	60.8
	교직원	1	0.2	8	6.4
	공기업	1	0.2	0	0.0
	공무원	1	0.2	0	0.0
	조교	2	0.4	0	0.0
	기타	37	7.4	41	32.8
	관련 자료 없음	194	27.8	55	30.6

나. 입주기업 일반 현황

남성 및 남녀 공동 입주기업의 주요 업종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처리, 바이오, 디자인 등의 업종이 24.0%, 서비스 업종은 12.2%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여성기업의 경우 제조업 50.0%, 서비스업 31.1%, 정보처리, 바이오, 디자인 등의 업종이 18.3%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기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생활용품제조업이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디자인, 바이오와 환경산업 업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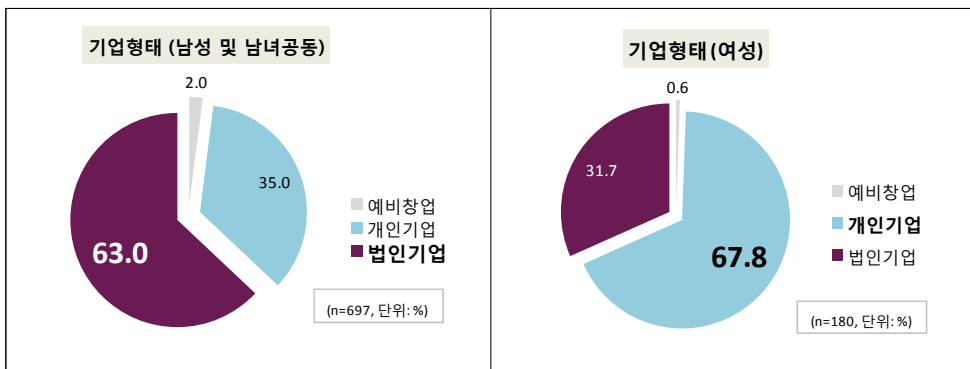
〈표 3-8〉 입주기업 업종별 분포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697	100.0	180	100.0
제조업	소계	445	63.8	91	50.6
	전자부품	127	18.2	8	4.4
	기계/장비	112	16.1	14	7.8
	생활용품	64	9.2	57	31.7
	기타 제조업	142	20.4	12	6.7
서비스업	소계	85	12.2	56	31.3
	기타서비스업	62	8.9	50	27.8
	연구개발/과학	16	2.3	4	2.2
	오락/문화	7	1.0	2	1.1
환경, 디자인, 정보처리 등	소계	167	24.0	33	18.3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89	12.8	7	3.9
	바이오/환경산업	62	8.9	12	6.7
	디자인산업	11	1.6	13	7.2
	자원/에너지산업	5	0.7	1	0.6

입주기업의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남성 및 남녀 공동대표 입주 기업 중 63%가 법인형태인 데 비해, 여성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이 67.8%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매출이나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3-5〉 입주기업 기업형태별 현황



〈표 3-9〉 입주기업 기업형태별 분포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697	100.0	180	100.0
기업형태	예비창업	14	2.0	1	0.6
	개인기업	244	35.0	122	67.8
	법인기업	439	63.0	57	31.7

입주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자를 제외하면 기업 당 평균 2.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여성 기업은 1.7명으로 나타났다.

〈표 3-10〉 입주기업 고용인원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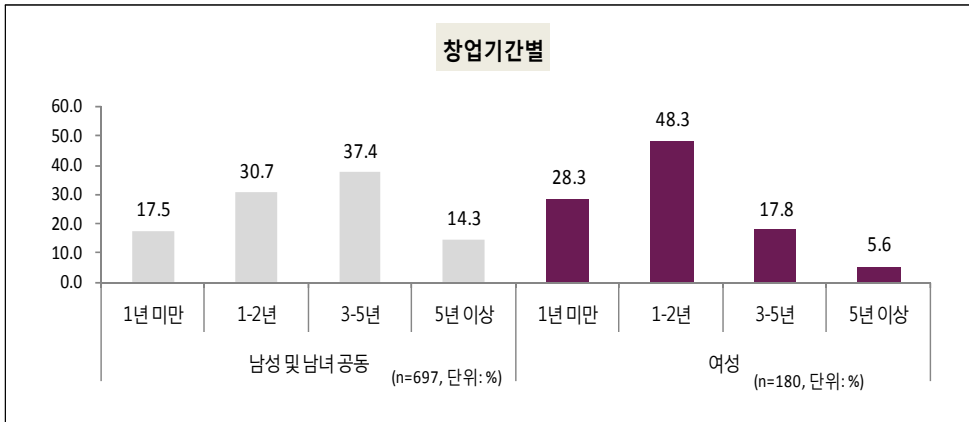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여성 대표
기업 수		697	180
대표자 제외 종업원 수	계	1,655	297
	평균	2.4	1.7

3. 여성대표자 입주기업 성과

가. 입주기업 창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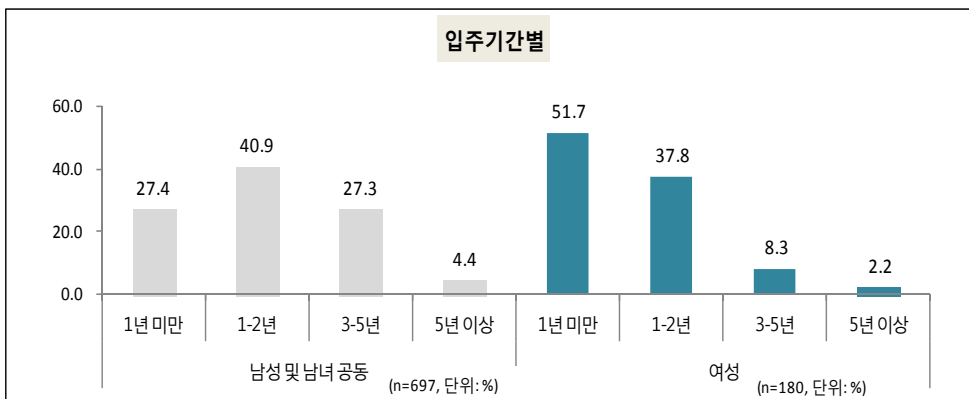
창업기간별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입주기업 분포를 보면, 1년 미만 기업은 17.5%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28.3%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현재 경기도가 3년 이상 10년 미만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창업보육센터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8년까지 입주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 특성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여성기업은 3년 이상 기업이 23.4%에 불과한데,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기업은 5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창업기간별 입주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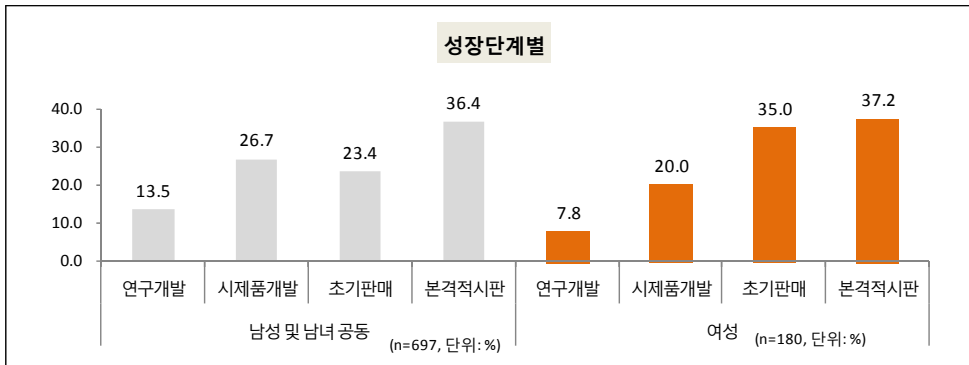
입주기간별 분포를 보면,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기업은 1년에서 5년 미만이 68.2%, 1년 미만은 27.4%인데 비해, 여성기업의 경우 1년 미만 기업이 51.7%로 나타났으며, 2년 미만 기업은 37.8%로 나타났다.

〈그림 3-7〉 입주기간별 입주기업 분포



성장단계별 분포를 보면,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기업의 분포 특성과 여성기업의 분포 특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기업의 경우 연구 개발이나 시제품 개발 비율보다는 초기판매와 본격적 시판 단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여성 기업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3-8〉 성장단계별 입주기간 분포



〈표 3-11〉 입주기업 창업과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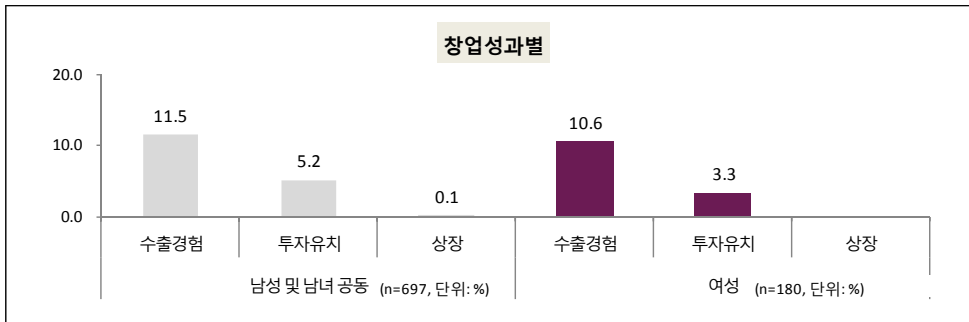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697	100.0	180	100.0
창업기간별	1년 미만	122	17.5	51	28.3
	1-2년	214	30.7	87	48.3
	3-5년	261	37.4	32	17.8
	5년 이상	100	14.3	10	5.6
입주기간별	1년 미만	191	27.4	93	51.7
	1-2년	285	40.9	68	37.8
	3-5년	190	27.3	15	8.3
	5년 이상	31	4.4	4	2.2
성장단계별	연구개발	94	13.5	14	7.8
	시제품개발	186	26.7	36	20.0
	초기판매	163	23.4	63	35.0
	본격적시판	254	36.4	67	37.2

나. 입주기업 창업관련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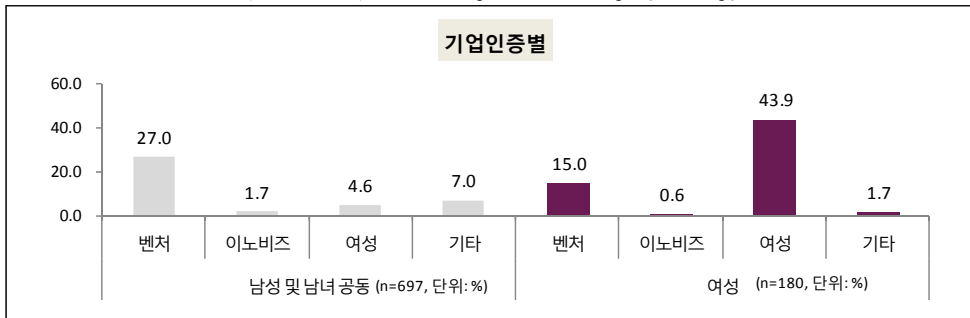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입주기업의 창업관련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입주기업에서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 투자유치 경험에 있는 기업은 5.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는 여성기업도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그림 3-9〉 입주기업 창업관련 주요 성과(수출, 투자, 상장)



인증사업별로 분포를 보면, 남성 및 남녀공동 기업 중 27.0%가 벤처인증을 받았고, 여성기업은 벤처인증 15.0%, 여성기업인증 43.9%로 나타났다.

〈그림 3-10〉 입주기업 창업관련 주요 성과(기업인증)



〈표 3-12〉 입주기업 창업과정 분포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여성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697	100.0	180	100.0
수출, 투자, 상장	수출경험	80	11.5	19	10.6
	투자유치	36	5.2	6	3.3
	상장	1	0.1	0	0.0
기업인증별	벤처	188	27.0	27	15.0
	이노비즈	12	1.7	1	0.6
	여성	32	4.6	79	43.9
	기타	49	7.0	3	1.7

입주기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입주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1,029건, 평균 1.5건이며, 여성 기업은 총 289건, 평균 1.6개로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기업의 성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13〉 입주기업 성과(지식재산권)

(2017년 12월 기준, 단위: 건, %)

구분		남성 및 남녀 공동 대표		여성 대표	
		계	평균	계	평균
지식재산권	계	1,029	1.5	289	1.6
	특허출원	379	0.6	80	0.4
	특허등록	262	0.4	38	0.2
	실용신안출원	39	0.1	4	0.0
	실용신안등록	25	0.0	3	0.0
	기타 재산권	324	0.5	164	0.9

4. 소결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입주기업 현황 및 입주 심사 여건) 경기도 입주형 창업보육기관 49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입주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42.9%는 20개 기업 입주 수준이고, 행정사무직은 별도 배치한 경우는 18.4%에 불과하며 창업매니저 1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26.5%로 나타났다. 또한 49개 기관 중 여성 창업매니저가 있는 기관은 38.8%로 나타났다.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기업 입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와 가점 여부를 살펴보았다. 조사 기관 중 85.7%가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입주 선정 위원회에 여성이 1인이더라도 있는 기관이 35.7%에 불과했으며, 전체 입주심사위원회 참여 인력 중 여성 위원 비율은 12.0%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40%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입주 심사 시 여성 창업자의 특성이나 여성창업자의 향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전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기관은 65.3%였으며, 대체적으로 가점 형식으로 반영되고 있었는데, 가점은 최대 10점에서 최저 1점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창업 매니저와 창업지원 기관 실무 책임자 간담회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가점이 거의 영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즉 전체 위원회에서 입주 신청 기업의 창업아이템과 향후 사업성 등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입주기업이 선정되므로 가점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있을 거라는 신화만 갖게 만드는 가점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대표자 입주기업 현황)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여성 대표자 기업은 여성 대표자의 전공과 업종 분포에 있어서 전체 여성 창업기업 분포와 비교할 때 이공계 전공자 비율(31.2%)과 제조업 비율(5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창업보육기관은 대체적 기술 중심 창업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입주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입주자 선정 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입주기업 형태를 보면, 남성 대표 및 공동대표 기업은 63.0%가 법인기업 형태였으나 여성 기업은 67.8%가 개인기업 형태로 나타났고, 여성 기업은 창업 기간도 76.6%가 2년 미만, 입주 기간도 2년 미만이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대표자 입주기업 성과) 이러한 입주 기업 특성은 성과에 있어서도 연동되는 데, 수출 경험은 남성 기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투자유치 비율은 전체 남성 및 공동대표 기업 중 5.2%, 전체 여성 기업 중 3.3%, 벤처인증은 남성 및 공동대표 기업 중 27.0%, 전체 여성 기업은 15.0%가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업 중에서도 또는 서비스 업 중에서도 투자나 벤처인증 등을 받기 어려운 창업아이템 비중이 높기 때문일 수 있고,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초기 여성 창업 기업은 계속 입주가 어렵거나 또는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주 여성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공정한 성과 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 4 장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창업매니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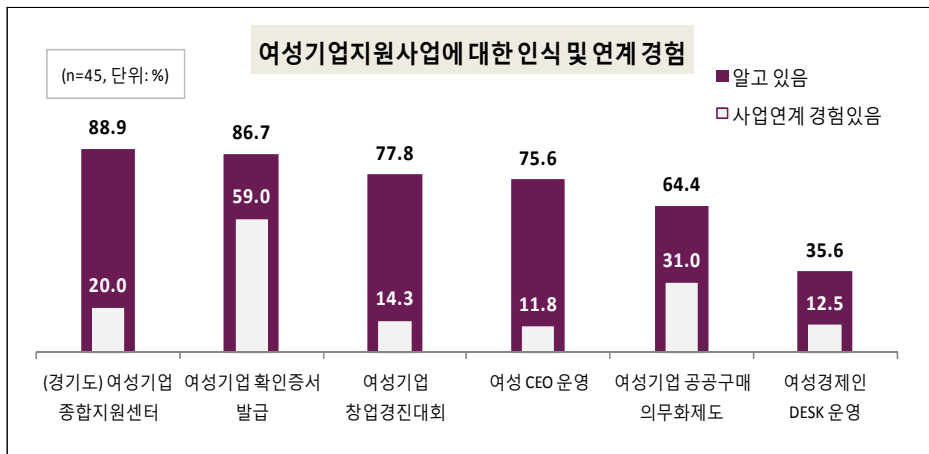
1.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
2.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FGI 조사 결과
3. 소결

1.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¹⁾

가. 여성기업 지원 사업

창업보육기관 창업매니저 조사에 응답한 49명중 4명을 제외한 45명은 여성기업지원사업이 별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성기업지원 사업 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88.9%), 여성기업확인서발급(86.7%), 여성창업경진대회(77.8%)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경제인 DESK운영에 대한 인지도는 35.6%로 낮게 나타났다(<그림4-1>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여성경제인 DESK운영사업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고,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업체는 이미 창업보육기관의 창업매니저를 통해 정보제공 및 상담이 가능하므로 그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9.0%가 여성기업확인증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기업공공구매의무화제도 연계 31.0%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계 20.0%, 여성기업창업경진대회 연계는 14.3%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그림 4-1〉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및 연계 경험



1) 조사개요는 본문 제1장 서론(11~12쪽)에 기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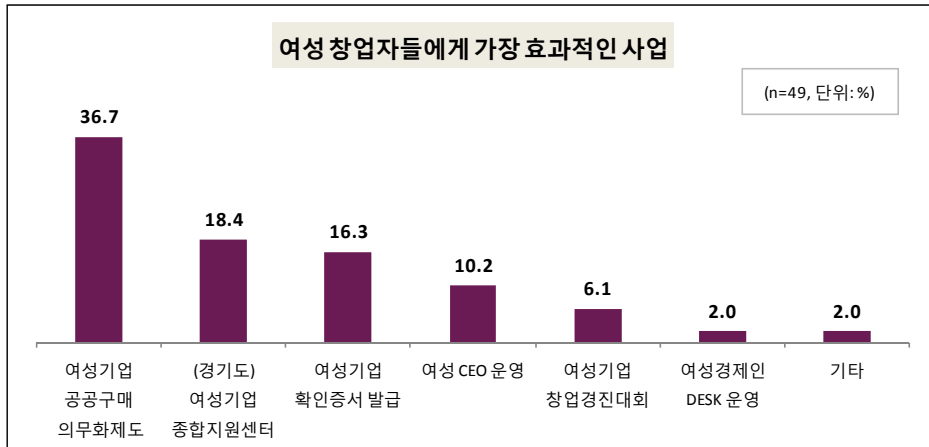
〈표 4-1〉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연계 경험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전체		49	100.0
여성기업 확인증서 발급	안다	39	86.7
	사업연계경험 있음	23	59.0
	사업연계경험 없음	16	41.0
	모른다	6	13.3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제도	안다	29	64.4
	사업연계경험 있음	9	31.0
	사업연계경험 없음	20	69.0
	모른다	16	35.6
(경기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안다	40	88.9
	사업연계경험 있음	8	20.0
	사업연계경험 없음	32	80.0
	모른다	5	11.1
여성기업창업경진대회	안다	35	77.8
	사업연계경험 있음	5	14.3
	사업연계경험 없음	30	85.7
	모른다	10	22.2
여성경제인 DESK 운영	안다	16	35.6
	사업연계경험 있음	2	12.5
	사업연계경험 없음	14	87.5
	모른다	29	64.4
여성 CEO 운영	안다	34	75.6
	사업연계경험 있음	4	11.8
	사업연계경험 없음	30	88.2
	모른다	11	24.4

그런데 관련 사업 중 여성기업확인증 사업 연계 경험이 가장 높지만,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사업은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여성기업지원사업 중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



〈표 4-2〉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여성기업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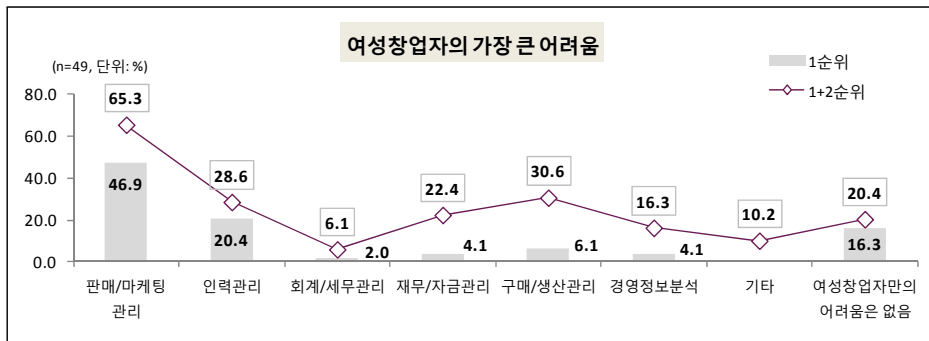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9	100.0
여성기업 확인증서 발급	8	16.3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제도	18	36.7
(경기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9	18.4
여성기업창업경진대회	3	6.1
여성경제인 DESK 운영	1	2.0
여성 CEO 운영	5	10.2
기타	1	2.0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	4	8.2

나. 입주형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그림 4-3〉 참조), 응답 매니저들 중 16.3%는 여성창업자만의 어려움은 없다고 응답했으나, 46.9%는 여성 창업자들이 판매/마케팅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20.4%는 인력관리라고 응답했다.

〈그림 4-3〉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창업매니저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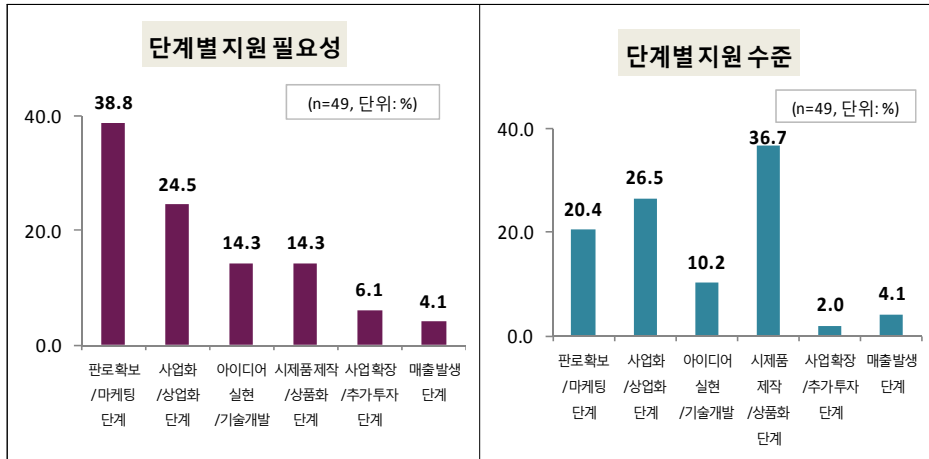
〈표 4-3〉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창업매니저의 인식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9	100.0	98	200.0
판매/마케팅 관리	23	46.9	32	65.3
인력관리	10	20.4	14	28.6
회계/세무관리	1	2.0	3	6.1
재무/자금관리	2	4.1	11	22.4
구매/생산관리	3	6.1	15	30.6
경영정보분석	2	4.1	8	16.3
기타	-	0.0	5	10.2
여성창업자만의 어려움은 없음	8	16.3	10	20.4

창업 매니저들이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단계는 여성 창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 한 바를 반영하듯 판로확보 및 마케팅 단계 38.8%, 사업화/상업화 단계 24.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실현/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상품화단계라는 응답이 각각 14.3%였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시제품 제작/상품화 단계(36.7%)와 사업화/상업화 단계(26.5%)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4〉 참조). 그에 비해 판로 확보/마케팅 단계는 2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창업자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단계가 판로/마케팅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4〉 창업지원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필요성 및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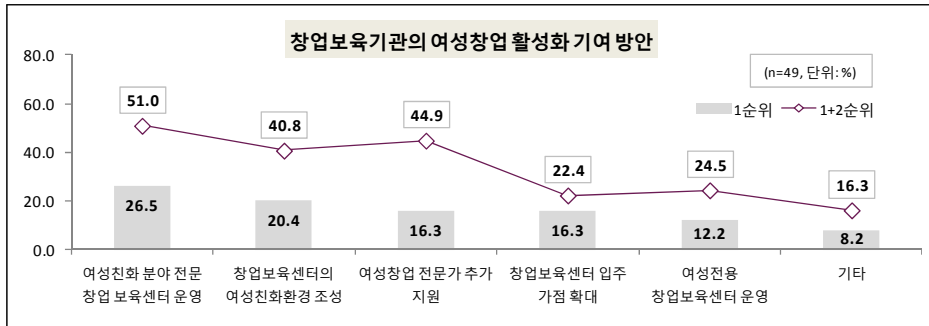
〈표 4-4〉 창업지원 단계별 여성창업 지원 필요성 및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단계별 지원 필요성		단계별 지원 수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9	100.0	49	100.0
아이디어 실현/기술개발	7	14.3	5	10.2
시제품 제작/상품화 단계	7	14.3	18	36.7
사업화/상업화 단계	12	24.5	13	26.5
판로 확보/ 마케팅 단계	19	38.8	10	20.4
매출 발생 단계	1	2.0	2	4.1
사업 확장/추가 투자 단계	3	6.1	1	2.0

창업보육기관이 여성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창업매니저들의 1순위 응답결과 여성친화분야 전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여성친화환경조성 20.4%, 여성창업전문가 추가지원과 창업보육센터 가점 확대가 각각 16.3%로 나타났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 복수응답결과를 보면, 창업보육센터 가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방안



〈표 4-5〉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방안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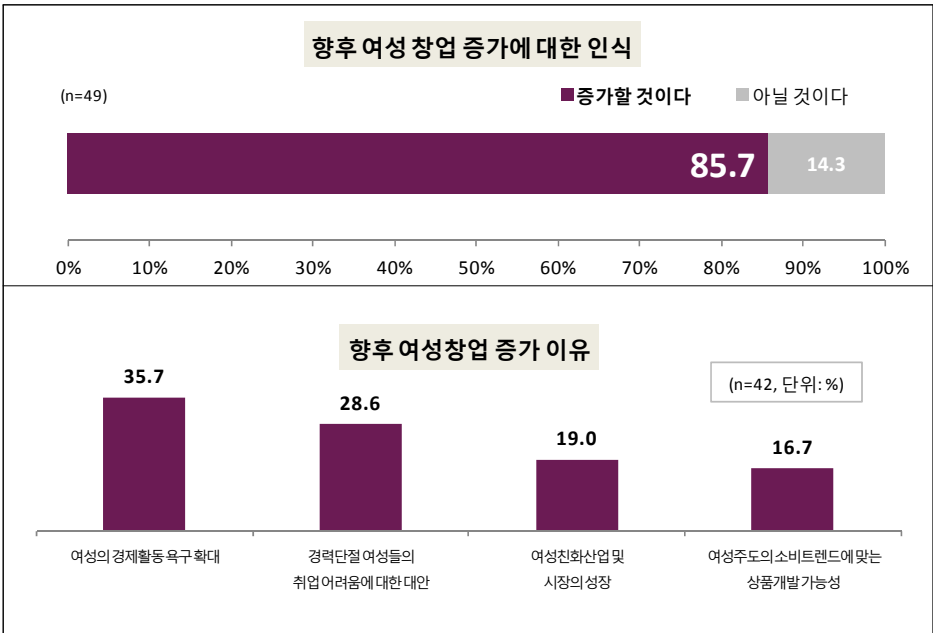
구분	1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9	100.0	98	200.0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운영	6	12.2	12	24.5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점 확대	8	16.3	11	22.4
여성친화 분야 전문 창업 보육센터 운영	13	26.5	25	51.0
창업보육센터의 여성친화환경 조성	10	20.4	20	40.8
여성창업 전문가 추가 지원	8	16.3	22	44.9
기타	4	8.2	8	16.3

다. 향후 여성 창업에 대한 인식

향후 여성 창업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 매니저 중 85.7%가 향후 여성 창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어려움에 대한 대안(28.6%)’ 이라거나 ‘여성친화산업 및 시장의 성장’이라는 응답이 19.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창업 증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시간배분 용이성에 기인’ 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창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이유 중 42.9%는 ‘일·가정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4-6〉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15년 경기도 미취업 여성 조사에서 창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서(13.3%) 또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어서(11.1%)라는 응답이 24.4%로 창업의사가 있는 여성

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었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과 창업 매니저들의 현실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6〉 향후 여성창업자 증가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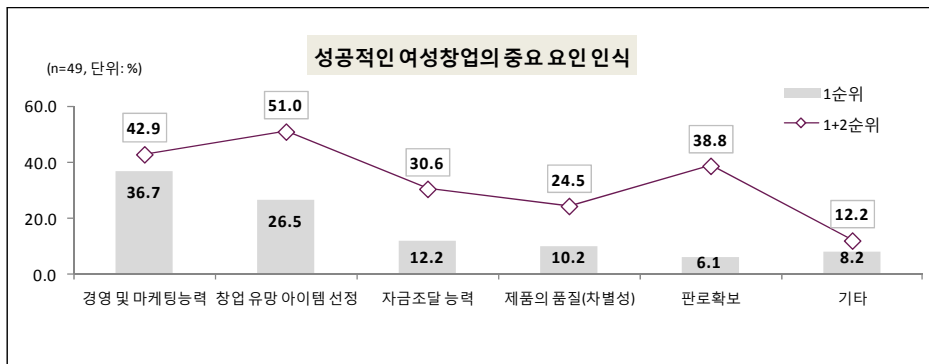
〈표 4-6〉 향후 여성창업자 증가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9	100.0
향후 여성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42	85.7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확대	15	35.7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어려움에 대한 대안	12	28.6
여성친화산업 및 시장의 성장	8	19.0
여성주도의 소비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 가능성	7	16.7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시간 배분 용이성	-	-
향후 여성창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7	14.3
창업에 필요한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4	57.1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3	42.9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창업매니저들의 응답 1순위의 결과를 보면(<그림 4-7> 참조), 경영 및 마케팅능력이라는 응답이 36.7%,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26.5%로 높게 나타나고, 판로확보가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1순위와 2순위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판로 확보라는 응답 비율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표 4-7〉 성공적인 여성창업의 중요요인 인식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9	100.0	98	200.0
경영 및 마케팅능력	18	36.7	21	42.9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13	26.5	25	51.0
자금조달 능력	6	12.2	15	30.6
제품의 품질(차별성)	5	10.2	12	24.5
판로확보	3	6.1	19	38.8
기타	4	8.2	6	12.2

여성 창업과 관련한 창업매니저들의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매니저들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화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여성 창업의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창업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예비 또는 창업 희망 여성들의 인식이 현실과 일정 정도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FGI조사 결과²⁾

가.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매니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공간 제공과 자원 연계 : 그러나 ‘될 것 같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창업보육매니저들은 예비 창업자 등 창업 초기 상태에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가 도입되어 크게 확산되던 시기에 비해 현재는 창업관련 사업화 지원이나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초기의 독자적인 창업지원 사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며, 창업매니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업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킹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은 법적으로 정의된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매니저 역할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

- (내부기업 연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이 없다가 업체가 50개로 늘어나고 분야가 나뉘면서 클러스터를 4개로 나눠서 간담회를 진행했음.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음. 실제로 내부 입주기업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했는데 협력업체가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요구를 하다보니 공급업체가 싫어했음. 협력업체 간 의견 차이를 매니저가 잘 조율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니저와 입주업체들 간의 접점 및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함(E).
- (임대료 및 관리비) 창업보육실 임대료는 지역별로 대체로 비슷하고 본 센터는 보증금 평당 10만원에 월 2만 5천원을 받음. 예를 들어 5평 임대료는 월 12만 5천원임. 여기에 전기료 등 월 3만원이 추가됨. 크기는 5평에서 40평까지 다양함(B).
- (교육 참여) 입주기업 상담 시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월 1회 교육과 간담회를 함께 진행함. 입주할 때 서면으로 계약을 안 하고 1년 단위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는데, 교육 참여율을 평가에 반영함(F).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업 취지와 역할을 중심으로 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²⁾ 창업매니저 FGI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론을 참조하기 바람.

현실적으로는 ‘지원하면 될 것 같은 기업 위주로 지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창업 매니저들이 말하는 ‘될 것 같은’ 기업이란 우수 사례가 될 만한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사)창업보육협회는 해마다 지역별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성과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8년 2월에 발간된 사례집에도 경기도 소재 10개 센터의 14개 졸업 기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그림 4-8>은 2018년 2월에 발간된 사례집에 경기도 사례로 소개된 2개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 구성 중 주요 실적 및 성과 영역을 보면, 3년간 매출액과 고용인원, 그리고 그간의 수상경력이나 창업지원수혜 실적 등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 4-8〉 창업보육 입주졸업기업 성과 사례집

넥시스(Nex Sys)

대표자 | 김 호 문
창립일 | 2014.11.11
창립자 | 김 호 문, 김 호 문, 김 호 문
창립자출처 | 기타(창립자출처)

대표자 | 김 호 문, 김 호 문, 김 호 문, 김 호 문
창립일 | 2014.11.11
창립자출처 | 기타(창립자출처)

메리스랩

대표자 | 김 호 문
창립일 | 2015.07.01
창립자 | 김 호 문, 김 호 문, 김 호 문
창립자출처 | 기타(창립자출처)

대표자 | 김 호 문, 김 호 문, 김 호 문, 김 호 문
창립일 | 2015.07.01
창립자출처 | 기타(창립자출처)

사업분야 주요 아이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별트레이 - 실시간 영상전송과 음성통신에 가능한 산업안전용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

사업분야 주요 아이템

연혁 및 장난감 제조
장난감, 장난감

제품설명 및 특징

- 별트레이**
[별트레이]는 실시간 영상전송과 음성통신에 가능한 산업안전용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이다.
- IoT 플랫폼**
별트레이 시스템은 실시간 영상전송과 음성통신에 가능한 산업안전용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이다.
- 실시간 관제시스템**
별트레이 관제시스템은 실시간 영상전송과 음성통신에 가능한 산업안전용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이다.

제품소개 및 특징

- 제품소개**
별트레이는 실시간 영상전송과 음성통신에 가능한 산업안전용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이다.
- 제품특징**
별트레이는 실시간 영상전송과 음성통신에 가능한 산업안전용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이다.

주요실적 및 성과

연도	2014	2015	2016
매출액 (백만원)	21	149	30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가장 매출액이 높은 기업
· 매출액 성장률 100% 이상
· 매출액 성장률 100% 이상
· 매출액 성장률 100% 이상

주요실적 및 성과

연도	2014	2015	2016
매출액 (백만원)	4	5	7

· 매출액 성장률 100% 이상
· 매출액 성장률 100% 이상
· 매출액 성장률 100% 이상

[별트레이 IoT 플랫폼 & 관제시스템]

[메리스랩 장난감]

자료: 추출일(2018. 5. 26) <http://www.bi.go.kr/main/main.do>

창업보육기관이 스타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이유와 관련해서 지방의 창업선도대학에서의 창업지원 경험이 있고,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창업매니저는 창업보육센터가 도입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창업보육센터 자체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창업 사업이 커지면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고 현재는 창업보육실 운영 기관으로 축소되어온 것과 연관지었다. 즉, 창업보육센터가 스타기업을 육성해내면, 창업보육센터가 입주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2017년 사업에 대한 2018년 평가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고, 최저기준선인 60점 이상을 받으면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되, 상위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정 수준 이하인 창업보육센터는 퇴출시키되, 초기 창업보육 기능 수행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량평가 비중을 낮추고 입주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창업보육서비스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들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스타기업을 만들기 위한 센터와 창업매니저의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창업 초기 단계 창업보육 : 그런데 성과는 그 이상을 요구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창업보육센터는 초기보육을 해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곳’ 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와 동일한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중 우수한 창업 기업은 기업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보다 좋은 조건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언제든지 이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을 기준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 창업과 관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크게 세 기관이 있는데 중기부에서는 세 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봄. 그러나 창업보육센터는 초기보육을 해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내보내면 나머지 두 기관이 강소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세 기관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함(E).
- 창업보육기관은 보편적 복지로서 창업기초기반사업이 되어야지 실적을 내면 안 됨(J).
- 실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을 선정하게 됨(K).

창업보육센터 유형별 특성 : 대체로 유사하되 대학은 민간에 비해 덜 경쟁적

경기도 소재 창업보육센터 51개 중 37개 센터가 대학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창업보육센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학에 설치한 비중이 높고, 대학은 학내

관련 학과와의 연계, 청년 창업 육성 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입주자로서는 대학의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학과나 관련분야 교수를 연계하거나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민간에 비해 영리 추구 경향이 낮다는 점 등이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민간과의 큰 차이는 영리추구의 정도라고 생각함. 민간은 철저히 수익위주여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구성하게 됨. 예를 들어 10억 미만의 매출기업이라면 민간은 받지 않지만 대학은 받음. 중소기업의 기반 다지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E).
- 저희 창업보육센터의 설립목적은 대학에 있는 학과와 관련 업종을 특화하는 것이었음.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 산학협력 체결을 권장함. 입주기업의 아이템 특성에 맞는 학과를 선정해서 학기별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관련학과 교수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기업과 학과가 공동 특허도 진행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대학 내 도서관, 교직원 식당, 화이트보드 센터 이용 등 제반 시설을 입주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단점은 기업과 밀착해서 지원해주기 보다 대학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게 함께 움직여야 하고 센터가 따로 독립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임. 대학 산학협력 등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하게 되고, 창업동아리 캠프 준비에 기업가정신 겸직까지 하다 보니 입주기업에 세부적으로 신경 써 주기 어려움(D).
- 민간과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와의 차이점은 취업, 구인구직, 전문인력에 대한 연계가 잘 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시제품 개발 시 제품 디자인이 어려운 업체는 디자인과 교수와 연계해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함. 기업의 시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교수는 업체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됨. 기업에서 연봉이나 인건비를 줄이기를 원하면 취업예정자를 연계함(C).

여성창업자 입장에서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보다 덜 경쟁적”이라고 추측했으나, 입주 여부 선택은 창업보육센터 유형보다는 집과 가깝거나 거래처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등의 이유가 주요 기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여성창업자의 센터 선택) 여성창업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민간에 비해 덜 경쟁적이어서 적합할 거라고 생각됨. 대학은 인력, 공간, 기자재 활용이 용이함. 여성창업자들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보다 공공성이 있는 대학에서 하는 게 좋음(B).

- (입주자들의 센터 선택) 본교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찾아오면 BI넷을 안내하고 여기서 최적의 센터를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함. 그럼에도 본교 센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된 이유는 같이 일하는 교수가 본교 소속인 경우, 거래처가 학교 근처인 경우(학교 주변에 공단들이 있다 보니 기계전자쪽 업체들은 주변에 거래처가 많음), 깨끗한 근무환경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벤처센터 이미지가 강한 대학 내에 입주해서 바이어를 부를 경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임(E).

나.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창업지원 기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창업보육센터 여성입주 지원 : 가점의 한계

초기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창업관련 대안 공간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유인이 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만큼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경기도는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입주 기업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은 대체적으로 여성 기업에 가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사업 담당자 간담회에서 가점이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점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입주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창업 성공가능성이며, 창업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은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과 기술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입주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주고, 창업보육센터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채우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는 3년 이후 10년 미만 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2016년부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여성 입주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의왕시에 여성 전용 센터를 설치하였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동일한 지침을 따름. 여성가점은 있지만 1점차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효과는 떨어짐(K).

여성창업자 입주 비율이 낮은 이유 1 : 여성 기술기반 창업자 수 적기 때문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입주자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창업매니저들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만한 기술기반 여성 창업자들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성들이 기술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 확장성이 크거나 시장 분석과 마케팅을 잘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 여성 기업의 경우 기술기반 창업이 별로 없음.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경험이 남성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대신 여성기업이 기술창업으로 시작하면 사업확장성이 강함. 예를 들어, 사업 아이템이 성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사업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잘 하고 고객층도 어느 정도 확보함(C).
- 기관에서는 여성 창업자를 선발하면 가점이 있기는 한데 과연 이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와줄까 이런 딜레마가 있음. 그러나 성공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음. 아이템보다도 마케팅 방법 등 남성들 보다 여성들이 훨씬 뛰어나서 이를 잘 활용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음. 아이템이 잘 맞고 대표자의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드리는 것은 쉬움(H).

여성창업자 입주 비율이 낮은 이유 2 : 기술기반 창업 중심의 센터 운영 방식

창업보육센터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여대생들이나 여성들은 온라인 창업이나 유통과 관련한 창업 아이템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지원 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학교에 있다 보니 여학생들이 창업아이템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면 다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옴. 빅사이즈 여성 의류를 파는 온라인 물 운영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 친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음(G).
- 우리가 중소기업정책부의 트랙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 창업에 의해서 이런 쪽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타일난다’ 그것도 창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업보육지원법에 의하면 지원 제외 대상임. 법 밖에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다던지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임(G).

최근 관련법이 바뀌면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23개 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업 등 5개 업종만 제외되었고, 그 결과 이미용관련업, 숙박임대업, 여관업, 마사지업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벤처인증과 관련한 연구개발유형에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되던 것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향후 여성 창업자들의 입주 가능성이나 벤처 인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창업매니저들은 벤처 인증을 위해서는 정량 평가 점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점수를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벤처 인증 기준의 변화가 여성들의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 벤처인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벤처인증은 대표자의 경력이나 기술의 고도화, 특허 보유 여부 등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 벤처를 만들려면 사업계획서를 또 써야 함. 과연 미용실이나 이런 소상공인이 하는 이런 업종을 벤처 쪽으로 가져가서 페이퍼라든지 평가 항목을 맞춰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듯함. 차라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벤처와 비슷한 인증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듯함(H).

다.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창업자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막연한 성공 기대

여성들은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재능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는 경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은 아이디어나 창업 초기 단계에서 오히려 성공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높은 경향도 있어 여성 창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 창업매니저는 아이템이 우수하고 사업성도 있어 창업지원을 사업을 받았던 여성 창업자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 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세금이나 행정처리 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 매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 ○○○ 대표님이라고 홈쇼핑에서 차(tea)로 완판하는 분이 계심. 처음에 사업 선정되고 1차년도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적을 안내주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는데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이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제품 만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혼자 현금으로 다 받으셔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거더라고 말해주었더니 그 다음 해에 매출이 5~10억 정도를 올림(H).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입주

창업매니저들은 여성창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한 낮은 수준의 구상만을 가지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 중도 탈락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사업에서 영업도 중요한데 예비창업자로 사업자등록 낸 여성기업이 몇 분계신데 아직 매출은 안 나옴. 6개월 단위로 연장심사가 있고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매출이 없다보니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집안일과 병행하여 1년 정도 입주한 후 연장 가능함에도 일 가정양립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음(K).
- 화장품 분야로 시작하는 분들이 영세한 편이고 본인의 레시피만 갖고 OEM등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곳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아이디어는 있으나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음. 예를 들어, 마유크림 생산 업체가 있는데 이 분은 예전에 마유크림을 다른 곳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경험을 갖고 창업을 해서 입주함(G).
- G프로젝트 여성 참여율을 보면 예비창업자 단계에서는 여성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지만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감소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기창업자의 경우는 17~18%정도로 낮아지는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관련 경험이 적은 편이고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다보니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점점 참여율이 감소되는 것 같음(I).

여성들이 생각하는 창업은 부업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

여성 창업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창업을 ‘부업’ 쯤으로 인식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대체적으로는 창업에 대해 남편의 수입을 고정적인 안전장치로 삼고,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

면하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창업 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러한 여성들의 인식과 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 기업의 한계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고, 여성창업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중에는 오히려 남성들은 필요 이상으로 사업을 무조건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더 성장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거나, ‘이 정도면 난 충분’ 하다고 말하는 등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여성창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기업화되기 어려운 것 같음. 사업이 잘 됨에도 1인 기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음. (J).

창업 후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의 지출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

다수의 창업매니저와 창업지원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사업이 시작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창업자가 더 이상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없는 단계가 오면 남성 대표들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만, 여성들은 채용을 해야 할지를 망설이거나, 본인이 어떻게든 감당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회계 개념과 남성들의 회계 개념이 다르다거나, 남성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걸 귀찮아하고 자신이 못하는 걸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 남녀의 회계개념이 다름. 남자들은 회계개념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일단 쓰고 더 좋은 것을 받아 온다라는 생각이 있음. 투자로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걸 재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이걸 집에 가져가서 우리 애들 맛있는거 사줘야지 하는 성향이 강하심. 여성분들은 누굴 고용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함. 그 사람한테 월급주는 걸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거 내가 하지 이런 성향이 있음(H).
- 남성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파이를 키우고 고용하면서 키우는 데 반해 여성기업들은 본인이 다 끌어안고 감. 이런 것을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진짜 기업가가 되기 어려운 것임(I).

- 젠더에 따른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기업가정신으로 보고 싶음. 남자, 외향적인 성향 이런 것 보다는 기업을 키워야 되고 미래를 봤을 때는 채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당장 현재에 집중해서 수입 지출, 현금 흐름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음. 기업가가 남자이고 여자이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앞으로 3년, 5년 후를 보고서 기업을 확 성장시키고 확장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을 하나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채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지금 현재 내가 꼭 필요한 걸 느끼는데 지금 사람 채용할 돈이 없다는 것임(G).

라.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창업 지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여성창업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지원이 취업 여성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창업은 오히려 수입이 없이 장기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입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지원(R&D 지원)

창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인증관련 제한 업종을 크게 축소하고 R&D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보다 유연하게 정비하고 있으나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변화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창업자들이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R&D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대한 1:1 밀착 지원

여성창업 지원 사업은 주로 창업관련 교육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경우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기로에 서게 되는 단계가 판매 경험 이후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여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여성창업자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하면, 1:1 멘토링을 일정 기간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여성들에게 부족한 사업 마인드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 도입

여성들이 창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시장조사와 판로개척을 위한 실전형 경험을 동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는 창업 교육프로그램은 특강이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중간에 실습과 관련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보도록 하는 방식인데, 남성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현실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와 판로개척 등과 관련해서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목표를 세분화 하고, 각각에 대한 검증과 컨설팅을 제공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소결

관련법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된 시설이다. 즉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사업성, 시장성 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창업매니저는 창업보육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창업보육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에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중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성 입주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기관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들이 창업과 창업 후 안정화를 위해 제공되는 입주형 공간과 관련 정보 및 도움을 상시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창업지원 형태이며, 2018년 1월 벤처인증 예외 업종 등이 기존 2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만 축소되는 등 창업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여성 창업자의 입주가 확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창업보육기관을 통한 여성 창업 활성화는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중심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여성 창업자 규모가 적고, 한편으로 기술력이나 향후 창업성 공가능성이 높은 입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기술 중심 창업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이 입주자 선정 시 부여되는 가점이나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여성 입주자 비율이 높으면 평가 점수를 일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 여성 입주자가 확대되고 여성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매니저 대상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존의 창업 환경과 패러다임에서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에 대한 현실 인식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창업자들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창업을 시도하거나 창업을 부업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사업모델로까지 성장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디어가 사업화과정을 거쳐 사업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꺼리거나 가능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업매니저들은 여성 입주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창업자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성 창업자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과 기술이전 사업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 입주자 특화 사업화 지원 사업과 창업매니저 인력 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입주한 여성 기업에 대한 1:1밀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되 기존의 창업보육기관 전달체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성창업자들에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장조사나 판로개척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전형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패키지 지원 사업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기도가 여성창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대상 별도 추진체계와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결론

1. 연구결과 논의
2. 경기도 여성창업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1. 연구결과 논의

가. 여성창업자의 젠더 특성과 과제

우리나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임금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에도 여성의 경력단절과 성별 고용격차의 개선은 더딘 상 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창업 영역에서 일정 정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성의 창업 도전) 창업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에 비해 위험에 대한 감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이러한 혁신과 도전, 그리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기업이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들도 창업을 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도전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앞서 여성들의 창업 동기를 보면, 창업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취업 여건을 피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취업희망 여성 중 창업희망 여성에게 창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령의 구해를 받지 않는다거나(16.1%) 시간의 자유로운 활용(13.3%) 및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11.1%)라는 응답이 40.5%에 달했다. 기존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또는 사회적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틀에서 보면, 여성들의 창업 동기는 실패를 내재하고 있거나, 주류 창업 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난 형태라는 점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창업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은 OECD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창업 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창업에 대한 정의와는 다른 여성 창업자들의 기대 및 창업 욕구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여성들의 관심이 높고, 창업 도전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 성공적인 여성창업 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지원 모델이 요구되며, 한편으로 막연한 창업 기대와 도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 창업 주변화 현상)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창업은 혁신과 도전의 영역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기술

혁신형 창업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 정책이 주를 이루는 창업 환경에서 위와 같은 여성창업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유추해보면, 여성 창업은 주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성 창업의 주변화 경향은 실제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중앙에서 추진하는 주요 창업정책의 성별 수혜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사업화 지원 사업의 여성 비율은 23.0%, 창업기업자금(융자) 지원 사업은 13.8%,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은 15.3%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7년 이하 창업 기업 중 여성 창업자 비율이 31.5%인 것을 감안해도, 사업화나 인프라 활용 비율이 낮고, 사업성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사업 참여비율 역시 더욱 더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 창업이 기존의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정책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창업지원 사업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성차별이 없으며, 현황 및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 펀드 등을 할당하는 방식의 성주류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창업생태계가 기술 혁신형 창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에서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초기 창업자는 정부 각종지원 사업 수혜 실적과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평가, 매출, 투자, 수출 등과 같은 지표가 중심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실제 창업률이 낮고, 성별에 따른 전공 및 직종 분리가 뚜렷하며, 남성에 비해 일 경험이 적은 여성이 위와 같은 지표에 맞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 정책 틀과 구조가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한편으로 여성이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들의 아이템의 시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지의 문제 등이 폭넓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입주자 선정 시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은 입주기업 선정 과정과 절차 상거의 영향을 주기 어렵고, 창업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 기능을 하는 R&D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향후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성 평가 기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식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분야 여성 창업기업 저변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양을 채우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여성 창업 확대와 내실화에는 거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방식이면서도 오히려 반발만 살 수 있다.

따라서 가점제와 여성전용 할당 여성의 참여와 기회 확대에 큰 기여가 없음에도 기업의 경쟁력이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지원받았다는 인식을 주

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창업자의 특성과 성공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특화 사업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인 G창업프로젝트 사업의 여성참여 비율이 35.1%로 나타나고, 경기도는 여성 창업지원 전문 기관과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또는 경기도 여성창업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추진 허브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젠더 차이에 따른 여성 창업자 특성) 성별 전공의 차이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 창업자의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기술기반 또는 고부가가치 창업 분야인 공학 및 의학계열의 여성 창업은 남성 창업자의 절반 수준이며, 미취업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가 52.1%고,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사무직 비율이 32.5%에 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젠더 특성은 여성들의 창업 분야를 제한하게 되는데, 창업보육기관 입주 기업들의 주력 업종은 60% 이상이 제조업이며,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입주자들도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과 달리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 생활용품제조업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점이다. 여성 창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기반보다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르는 경우가 현저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업 장애요인 인식에 있어서 여성 창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7.3%p),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 경험의 부족(5.6%p),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7.1%p)에 대한 항목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 역시 경제활동 경험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고 경력단절 후 창업한 비율도 높기 때문에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FGI 과정에서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어차피 창업과정이나 창업 후 여성과 남성이 성별과 무관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여성친화 분야 전문 창업 보육센터 운영(1순위, 28.6%, 1+2순위, 57.1%)”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입주 기업은 남성 입주기업에 비해 3년 이상 사업체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

성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되, 일반적인 유형보다는 여성 창업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환경과 창업지원 생태계가 여전히 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치우친 상황에서 여성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영역을 발굴하여 여성 창업 특화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창업 지원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창업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 한 후, 정책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여성 창업 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창업보육기관의 여성참여 실태와 과제

(창업보육기관의 특성과 여성 창업지원 가능성) 관련법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중수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된 시설이다. 즉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사업성, 시장성 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또한 법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중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성 입주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기관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들이 창업과 창업 후 안정화를 위해 제공되는 입주형 공간과 관련 정보와 도움을 상시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창업지원 형태다. 또한 2018년 1월 벤처인증 예외 업종이 기존 2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만 축소되는 등 창업환경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 창업자의 입주가 확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인식은 창업매니저들 역시 경험적으로 최근의 여성 문의 전화나 여성 입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 창업자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창업보육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보육기관에 여성 창업자 입주자 비율은 20% 남짓이지만, 입주 한 여성 기업은 전체 여성 창업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 창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과 측면에서도 수출경험, 벤처 인증이나 지식재산권 취득 면에서는 여성 입주 기업 전체의 규모가 적고 여전히 남성 기업에 비해 그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성 기업은 창업보육기관 입주 기업 중 1, 2년차 창업 기업 및 입주기업 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때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하고 있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입주 기간을 늘려 이들이 보다 더 생존 가능한 형태의 기업으로 졸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창업보육기관의 특성과 여성 창업지원 한계) 그러나 현재 창업보육기관을 통한 여성 창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중심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여성 창업자 규모가 적고, 한편으로 기술력이나 향후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입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기술 중심 창업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이 입주자 선정 시 부여되는 가점이나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여성 입주자 비율이 높으면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 여성 입주자를 확대하고 여성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창업을 하려는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의 창업 환경에서 여성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과 향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

우선 보완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창업매니저 대상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종합해볼 때 매니저들은 기존의 창업 환경과 패러다임에서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에 대한 현실 인식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창업자들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창업을 시도하거나 창업 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사업모델로까지 성장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디어가 사업화과정을 거쳐 사업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식하고, 가능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업매니저들은 여성 입주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창업자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성 창업자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과 기술이전 사업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 입주자 특화 사업화 지원 사업과 창업매니저 인력 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입주한 여성 기업에 대한 1:1밀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되 기존의 창업보육기관 전달체계를 활

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성창업자들에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장조사나 판로개척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전형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창업보육기관의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패키지 지원 사업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기도가 여성창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대상 별도 추진체계와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기도 여성창업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가. 창업희망 여성의 저변 확대와 필터링 기능 강화 :

“ 창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여성 누구라도 찾고 싶은 「꿈마루」를 지향하되,
창업성공을 위한 사전 점검 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

어떠한 동기에서든 여성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시도는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창업보육매니저 역시 여성들의 창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의 창업은 직무 경험이나 기술 중심 창업 보다는 생활 경험 기반 또는 자신의 취미나 활동 기반 창업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업보육기관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년 이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창업자의 입주 확대가 쉽지 않은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 창업보육기관의 여성기업 입주 비율은 20% 남짓으로 남성의 1/5 수준이다.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제조업 여성창업자들 중에서 과반수 정도는 생활용품 제조업 창업이다. 즉, 창업 아이템에 따라 여성들은 경험 및 생활 기반 창업이 많고, 그 경우 다시 여성이 주 고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위해 창업을 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필요에 따른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하게 되는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감이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인 경우 오히려 여성이 마케팅에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들이 창업 과정에서 제품 개발 후 판로 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도 있으나, 한편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경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마케팅을 더 잘한다는 평가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성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나 경험 기반 창업은 현재 여성발명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외에는 기존의 창업지원 사업의 틀 안에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기반형 혁신 창업이 아닌 경우 평가 절하되거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여성창업을 위한 열린 공간인 ‘꿈마루’ 지원 사업의 목표를 여성창업 저변 확대로 설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창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내 여성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개 지역에 설치된 ‘꿈마루’의 지역적 특성과 창업 관련 연계 가능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창업 지향점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용인에 위치한 꿈마루는 IT 기반 기술 및 사업서비스 중심의 여성 창업을 지향하고, 의정부의 꿈마루는 인근의 창조허브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콘텐츠 중심의 여성 창업을 지향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관련 특강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되되, 기본적으로 일반 주민편의 시설과 같이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막연하게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테스트 베드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막연한 창업 성공 기대를 가지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들이 꿈마루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한 창업 아이템이 어느 곳에서 이미 제품화 되어 있는지 등을 검색하고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성공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여성 창업자들의 특강을 통해 아이디어나 막연한 기대로 시작하는 창업은 지양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아이템이 있다는 것이 곧 바로 창업 성공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창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와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기 위한 자신의 태도와 아이템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 시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선정할지, 아니면 창업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적이지 않은 창업 실패 경험을 최소화 하고, 한편으로 향후 사업화를 위한 사전 작업 공간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창업 지원 사업 참여 후 성공적인 후속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여성 창업 경쟁력 분야 여성창업지원 모델 구축

“ 여성 창업 다수 분야 또는 여성 창업 경쟁력 분야 중심 여성 특화 창업지원 모델 구축 ”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여성 기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 창업보육기관의 특성상 기술기반 창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50.6%로 과반수를 넘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세부적인 분야를 보면, 62.6%가 생활용품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남성에 비해 정보처리 등의 세부적인 분야를 보면, 디자인이나 바이오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서비스업 업종의 경우 남성에 비해 18.9%p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관련 사업서비스업이나 오락문화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 되는 분야의 창업 비율이 89.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주로 창업에 도전하는 업종을 보면, 남성과 차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혁신형 창업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세부 업종을 유형화 하여 여성 창업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창업보육기관이나 정부 및 경기도의 창업지원 사업은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근간으로 추진되거나 소상공인 창업지원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여성 창업 분야에 대한 사업화 과정에서 현재 지원되는 창업지원 사업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별도의 제한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쟁에서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로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활속 경험 기반 제조업 창업지원 사업 지원 모델’이나 ‘소자본 창업의 기술 및 디자인 연계 창업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여성이 선호하고 여성이 강점을 나타내는 창업 분야를 특정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을 배치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별도 기관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형이 아닌 소규모지만,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전용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현재 경기도 벤처창업지원센터 중 여성 전용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를 일반 창업보육센터 운영방식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꿈마루 운영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여성 창업 특화 모델을 중심으로 창업 보육 사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입주형 방식이 아니므로, 인근의 창업 보육센터와 연계하는 모델이나 개별 입주 공

간이 있을 경우 입주형 사업을 추가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여성 창업 허브 기능 강화

“여성창업보육기관 자체 운영 가능 외에 타 창업보육기관 입주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수행”

창업매니저들은 창업보육기관이 입주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성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창업 관련 정보가 늘어나면서, 이를 토대로 접근성이 좋은 창업보육기관에 문의하거나 입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막연한 창업자들 사이에서 그나마 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하고, 기술 중심 창업에 여성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보육 기관에 입주한 여성 기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에 대한 구체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기관 입주 여성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기도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꿈마루나 창업보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창업과 관련한 준비나 의지가 있는 초기 창업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창업 매니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여성 입주기업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참여나 사전 협의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량개발 1팀과 2팀에서는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개발 1팀은 이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여성창업지원 운영 기관으로서의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현재도 경기도 여성 창업지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꿈마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창업보육센터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2018년부터는 경기도 자체사업비로 3년 이상 7년 이내 포스트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자체로는 캠퍼스 내에서 창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과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에 국한한 창업보육기관 운영과 각 사업별 평가들에 얽매어 타 기관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내 유사 기관의 입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의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거버넌스 중심점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역량개발 2팀은 꿈마루와 소점포 창업과 관련한 체험형 창업보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점포 창업은 소상공인 지원 영역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IT와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미용업이나 숙박업 등도 벤처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창업보육기관 입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역량개발 2팀이 소재한 의정부 시설 인근에 디자인과 콘텐츠가 결합한 제조업 중심의 창업을 지향하는 창업지원 시설인 창조허브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창업지원 여건을 고려한 여성 창업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이들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특화 사업 추진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관련 실전형 프로그램,

입주기업 1:1 멘토링 지원 사업 추진”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 기업은 2년 미만 기업 비율이 거의 90%며, 1년 미만 기업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입주 연장이 안 되거나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창업매니저 면접조사 과정에서 ‘여성 창업자들은 1인 창업 수준에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창업자들의 경향은 젠더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간의 경험이나 창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또는 영업이나 마케팅 또는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창업과 관련해 유용한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남성 중심의 사업 관행이 팽배한 상황에 기초한 판단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젠더 차이와 남성 중심 사업 환경에서 창업에 도전한 여성들이 성공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에게 필요한 사업 영역이나 사업운영 방식을 차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역량개발 1팀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간 운영해온 사업 중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멘토단을 활용하여 도내 창업보육기관 입주 여성기업

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연구 결과 여성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출시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 개발까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나,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되,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이나 도전 경험이 있거나, 사업지원 기간의 제한으로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복여부나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지원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 창업자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 다음으로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마케팅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 후 사업화 진전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광고, 홍보, 디자인 분야의 기 창업한 여성 기업을 통해 여성 창업기업의 마케팅을 대행토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앞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 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 창업한 여성 기업에게는 판로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단계를 지나 마케팅이 필요한 여성 기업에게는 전문적인 마케팅 지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문기업을 통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 지원 외에도 마케팅이나 판로개척과 관련한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업자가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피드백해주는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기업 활동에서도 마케팅 역량 개발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은 별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여성 기업의 특성과 필요한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화 지원) 끝으로 여성입주 기업에게는 입주와 함께 1:1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1 창업보육지원은 창업매니저의 주 역할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고, 한편으로 단순 정보 제공 방식의 1:1 지원은 기존의 낮은 수준의 컨설팅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창업자들 창업 초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기업 활동에 대한 현실감과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향후 사업의 비전도 세울 수 있도록 촉진하는 1:1 밀착지원 서비스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지원 방식은 창업보육기관 추천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기업 모집과 선정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추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스스로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밀착 지원을 통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일자리재단 (2017. 11). 2017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 경기도 (2017). 「경기도 지역고용실천전략」.
- 고지영 (2017). 「제주지역 여성 창업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재단.
- 국미애 (2016). 「여성 공예창업 활성화 지원기관 운영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김명화 (2015). 「경북형 여성협동조합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명희 (2013). 스웨덴 여성기업가정신정책 사례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223-246.
- 김복태 · 문미경 · 김대진 · 황현숙 (2014).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 김선화 · 남기남 (2013).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여성 1인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수은 외 (2016). 「소상공인 전라북도 여성소상공인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김영옥 · 이승현 · 이선행 (2016).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영환 · 오지선 (2017).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 활성화 방안」. STEPI Insight 제
205호, 1-35.
- 김종철 (2015). 「6차 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창연 외 (2006). 「서울시 여성창업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현아 · 전진희 (2012). 「광주광역시 여성창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손기영 외 (2009).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정책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 신선미 · 오은진 · 강민경 · 장희영 (2016).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양인숙 · 강민정 (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현봉 · 박종복 (2014).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원숙연 (2017).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국제비교: 젠더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접근. 2017 여성학논집, 34(1), 131-172.
- 이정섭 · 이미순 · 김선형 (2016). 「창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이호숙 (2015). 여성의 창업을 통해 본 기업가정신과 젠더전략. 여성학연구, 25(3), 99-140.

전혜진 · 박재환 (2015). 창업생태계 변화가 여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2), 85-96.

조경옥 (2008). 「전라북도 여성창업실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6). 「2015 여성기업 백서」.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2017). 「2016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6). 「2015 여성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년도 중소 · 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8). 「2017 여성기업 백서」.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천혜숙 (2016). 여성의 고성장기업 창업이 저조한 원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300-308.

최윤선 (2015). 「경기도 여성특화 창업지원플랫폼 운영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외 (2011). 「전문직 여성프리랜서 경력개발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 남승연 (2015). 「경기도 여성의 취업육구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허목화 (2017). 「강원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 모색」.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시스템. 대한민국정부 성인지예산서.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DB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정보 꿈수레 홈페이지

부 록

1.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운영현황 및 여성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경기도 창업보육기관 운영현황 및 여성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는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 개발 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경기도 창업보육사업의 여성참여 실태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5월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옥자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조사책임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장미(031-220-3986)

프로그램 문의 관련: 마크로밀엠브레인 남금호(02-3406-3938)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성명				연락처		
Part S	센터 일반현황					
센터유형	1)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4) 경기문화창조허브 6) 기타()			
센터명						
센터 소재지 (시군)	1) 수원시 5) 부천시 9) 안산시 13) 남양주시 17) 의왕시 21) 이천시 25) 광주시 29) 연천군	2) 성남시 6) 광명시 10) 고양시 14) 오산시 18) 하남시 22) 안성시 26) 양주시 30) 가평군	3) 의정부시 7) 평택시 11) 과천시 15) 시흥시 19) 용인시 23) 김포시 27) 포천시 31) 양평군	4) 안양시 8) 동두천시 12) 구리시 16) 군포시 20) 파주시 24) 화성시 28) 여주시		
기관유형	1) 대학 2) 연구소 3) 지자체 4) 공공기관 5) 민간/개인사업체 6) 기타()					
주력보육분야						

Part A	다음은 귀 보육센터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	--

A1. 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질문	답변 (2017년 12월 기준)
1-1	개소일	년 월
1-2	보육실 개수 (2017년 12월 기준)	총 개별 보육실 수 ()개 입주가능 기업 수()개/ 실제입주 기업 수()개
1-3		총 1인 창업지원 좌석 수 ()개 입주가능 기업 수()개/ 실제입주 기업 수()개
1-4		총 공동보육실 수()개 입주가능 기업 수()개/ 실제입주 기업 수()개
1-5	공동보육실 제외한 공용 공간 (2017년 12월 기준) ※중요 순으로 5가지 기술	총 개수 : () -> 세부 개수의 합과 일치 공용공간 1: 종류(), ()개 공용공간 2: 종류(), ()개 공용공간 3: 종류(), ()개 공용공간 4: 종류(), ()개 공용공간 5: 종류(), ()개 공용공간 6: 위의 응답 종류 외 모두 ()개
1-6	보유 장비 및 기기 (2017년 12월 기준) ※중요 순으로 5가지 기술	총 개수 : () -> 세부 개수의 합과 일치 기기 1: 종류(), ()개 기기 2: 종류(), ()개 기기 3: 종류(), ()개 기기 4: 종류(), ()개 기기 5: 종류(), ()개 기기 6: 위의 응답 종류 외 모두 ()개

A2. 귀 센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성격	규정(칙) 여부	상시여부	2017년 위원구성	2017년 사업운영기준
입주기업 선정위원회	1) 없음 2) 있음	1) 상시 2) 비상시	총()명 - 내부 ()명 - 외부 ()명	여성위원 () 명
입주연장 평가위원회	1) 없음 2) 있음	1) 상시 2) 비상시	총()명 - 내부 ()명 - 외부 ()명	여성위원 () 명
기타 평가위원회 ()	1) 없음 2) 있음	1) 상시 2) 비상시	총()명 - 내부 ()명 - 외부 ()명	여성위원 () 명

[To Prog : 규정(칙) 여부가 "2) 있음"인 경우만 상시여부, 위원구성, 사업운영 기준 질문]

A3. 귀 센터에서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내용	추진여부	예산	지원(금액, 횟수)	수혜(참여) 기업 수
사업화 지원금	1) 없음 2) 있음	1) 국비/도비/시군 예산 2) 자체예산 3) 기타()	기업당 최대()천원 평균()천원	()개 기업
1:1멘토링	1) 없음 2) 있음	1) 국비/도비/시군 예산 2) 자체예산 3) 기타()	기업당 최대()회 평균()회	()개 기업
전문가 컨설팅	1) 없음 2) 있음	1) 국비/도비/시군 예산 2) 자체예산 3) 기타()	기업당 최대()회 평균()회	()개 기업
교육지원사업	1) 없음 2) 있음	1) 국비/도비/시군 예산 2) 자체예산 3) 기타()	총()회 실시	()개 기업
기타 ()	1) 없음 2) 있음	1) 국비/도비/시군 예산 2) 자체예산 3) 기타()		()개 기업
기타 ()	1) 없음 2) 있음	1) 국비/도비/시군 예산 2) 자체예산 3) 기타()		()개 기업

[To Prog : 추진여부에서 “2) 있음” 응답자만 예산/지원/수혜 기업수 항목으로 넘어가기]

A4. 귀 센터의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분	여부	내용
선정시 여성기업 인센티브	1) 없음 2) 있음	1) 가점 ()점 2) 기타 ()

[To Prog : 여부에서 “2) 있음” 응답자만 가점 항목으로 넘어가기]

A5. 귀 센터의 총 인력은 몇 명입니까?

구분	인원수
총괄책임자(센터장 제외)	
센터장	
매니저(총괄 매니저 및 전담 매니저 포함)	
행정/사무직	
기타()	
전체	

A6. 각 인력구성원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근무기간	총 경력	연령	성별	근무형태	전담여부	창업매니저 관련 자격증 유무
센터장	년 개월	년 개월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1) 남 2) 여	1) 전일 2) 비전일: 주() 시간	1) 전담 2) 겸직	1) 있음 (자격증명:) 2) 없음

[To Prog : A5 응답을 기준으로 행 추가(구분별 인원 각각) , 연령 부터는 드랍다운으로]

Part B 다음은 귀 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B7. 귀 센터에 입주해 있는 전체 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기 문항에 응답 2) 별도 자료 제출 (관련 자료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

번호	질문	답변
7-0	귀 센터에 입주한 기업수 (2017년 12월 기준)	총 _____개
7-1	입주기간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5년 이상 ()개 기업 2) 3-5년 ()개 기업 3) 1-2년 ()개 기업 4) 1년 미만 ()개 기업
7-2	창업기간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5년 이상 ()개 기업 2) 3-5년 ()개 기업 3) 1-2년 ()개 기업 4) 1년 미만 ()개 기업
7-3	대표자 성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여성대표 기업 ()개 2) 남성대표 기업()개 3) 여성과 남성 공동 대표 기업 ()명
7-4	대표자 전공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문과 () 개 2) 상경 () 개 3) 이과 () 개 4) 공과 () 개 5) 법과 () 개 6) 예체능 () 개 7) 교육 () 개 8) 의과 () 개 9) 기타 () 개 98) 관련자료 없음 ()
7-5	대표자 최종학력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대학원(석사) 졸 이상 2) 4년제대졸 3) 전문대졸 4) 고졸 98) 관련자료 없음 ()

7-6	대표자 창업 당시 혹은 창업 직전 직업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민간기업() 개 2) 교직원() 개 3) 공기업() 개 4) 공무원() 개 5) 조교() 개 6) 기타() 개 98) 관련자료 없음 ()
7-7	기업형태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예비창업() 개 2) 개인기업() 개 3) 법인기업() 개 4) 해외사업자() 개
7-8	업종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1차산업 ()개 2) 생활용품제조업 ()개 3) 종이/출판/인쇄업 ()개 4)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개 5) 비금속/금속류제조업 ()개 6) 기계/장비제조업 ()개 7) 컴퓨터/사무기기제조업 ()개 8) 전기관련제조업 ()개 9) 전자부품등제조업 ()개 10) 의료/정밀등제조업 ()개 11) 운송장비제조업 ()개 12)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업 ()개 13) 연구개발/과학서비스업 ()개 14) 오락/문화서비스업 ()개 15) 기타서비스업 ()개 16) 바이오/환경산업 ()개 17) 디자인산업 ()개 18) 자원/에너지산업 ()개
7-9	전체 종업원 수 (2017년 12월 기준)	1) 대표자 수 ()명 2) 대표자 제외 종업원 수 ()명
7-10	창업성과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수출경험 ()개 2) 투자유치 ()개 3) 상장 ()개
7-11	창업성장단계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연구개발단계 ()개 2) 시제품개발단계 ()개 3) 초기판매단계 ()개 4) 본격적시판단계 ()개
7-12	기업인증별 입주기업 수 (2017년 12월 기준)	1) 벤처 ()개 2) 이노비즈 ()개 3) 여성 ()개 4) 장애인 ()개 5) 기타 ()개
7-13	전체 지식재산권 건수 (2017년 12월 기준)	1) 특허출원()건 2) 특허등록()건 3) 실용출원()건 4) 실용등록()건 5) 기타 재산권()건

[To Prog : 위 표의 모든 칸의 합은 B7번에서 응답]

※ 귀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 대표가 여성인 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여성 기업 전수 조사)

B9. 2017년 12월 기준으로 귀 센터에는 몇 개의 여성 대표자 기업(남녀공동대표 포함)이 입주해 있습니까? ()개

B10. 여성대표자(여성공동대표포함)가 입주한 기업 별로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할 수 있는 한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No	업체명	창업일	최초 입주일	대표				
				년/월/일	실제 대표 역할 수행 여부	전공	최종학력	창업당시혹은 창업 직전 직업
1				1) 여성 2) 남녀공동	1) 예 2) 아니오	1) 문과 2) 상경 3) 이과 4) 공과 5) 법과 6) 예체능 7) 교육 8) 의과 9) 기타 98) 자료 없음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5) 석사 6) 박사수료 7) 박사취득 98) 자료 없음	1) 민간기업 2) 교직원 3) 공기업 4) 공무원 5) 조교 6) 기타 98) 자료 없음

No	업체명	기업특성					
		기업형태	업종	주생산물	종업원수	매출액 (천원)	기타 (모두체크)
1		1) 예비창업 2) 개인기업 3) 법인기업 4) 해외사업자	1) 1차산업 2) 생활용품제조업 3) 종이/출판/인쇄업 4) 석유화학제품제조업 5) 비금속/금속류제조업 6) 기계/장비제조업 7) 컴퓨터/사무기기제조업 8) 전기관련제조업 9) 전자부품제조업 10) 의료/정밀등제조업 11) 운송장비제조업 12)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업 13) 연구개발/과학서비스업 14) 오락/문화서비스업 15) 기타서비스업 16) 바이오/환경산업 17) 디자인산업 18) 자원/에너지산업		1) 대표자 ()명 2) 대표자 제외 종업원 ()명		1) 수출경험 2) 투자유치 3) 상장 98) 해당사항 없음

No	업체명	성장단계	기업인증정보	지식재산권정보
1		1) 연구개발단계 2) 시제품개발단계 3) 초기판매통계 4) 본격적시판단계	1) 벤처 2) 이노비즈 3) 여성 4) 장애인 5) 기타인증 98) 해당사항 없음	1) 특허출원 ()건 2) 특허등록 ()건 3) 실용출원 ()건 4) 실용등록 ()건 5) 기타재산권 ()건 98) 해당사항 없음

[To Prog : 위 표의 모든 칸의 합은 B9번에서 응답한 업체수만큼 행이 나와야 함]

Part C

다음은 여성 창업 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C10. 귀하는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10-1로

② 아니오

→ 11로

C10-1. 귀하는 다음의 여성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관련 사업 연계 경험이 있습니까?

지원사업	인지여부	사업연계 경험
① 여성기업 확인증서 발급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제도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③ (경기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④ 여성창업경진대회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⑤ 여성경제인 DESK 운영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⑥ 여성 CEO 교육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⑦ 기타()	① 모른다 ② 안다	① 있음 ② 없음

[To Prog : 지원사업별로 인지한 경우만, 사업연계 경험 질문]

C10-2. 귀하는 다음의 여성기업지원 사업 중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기업 확인증서 발급

②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제도

③ (경기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④ 여성창업경진대회

⑤ 여성경제인 DESK 운영

⑥ 여성 CEO 교육

⑦ 기타()

C11. 귀하는 센터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성 창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____ , 2순위:____

① 판매/마케팅 관리

② 인력관리

③ 회계/세무관리

④ 재무/자금관리

⑤ 구매/생산관리

⑥ 경영정보분석

⑦ 기타()

⑧ 여성창업자만의 어려움은 없음

C12. 귀하는 센터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분야(업종)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분야와 상관 없음
- ② 분야와 상관 있음 (분야명: _____)

C13. 귀하는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창업지원 단계는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이디어 실현/기술개발
- ② 시제품 제작/상품화 단계
- ③ 사업화/상업화 단계
- ④ 판로 확보/ 마케팅 단계
- ⑤ 매출 발생 단계
- ⑥ 손익분기점 도달 단계
- ⑦ 사업 확장/추가 투자 단계

C14. 귀 센터에서 여성 창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원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이디어 실현/기술개발
- ② 시제품 제작/상품화 단계
- ③ 사업화/상업화 단계
- ④ 판로 확보/ 마케팅 단계
- ⑤ 매출 발생 단계
- ⑥ 손익분기점 도달 단계
- ⑦ 사업 확장/추가 투자 단계

C15. 창업보육기관이 여성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운영
- ②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점 확대
- ③ 여성친화 분야 전문 창업 보육센터 운영
- ④ 창업보육센터의 여성친화환경 조성
- ⑤ 여성창업 전문가 추가 지원
- ⑥ 기타 (_____)

C16. 귀하는 향후 창업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16-1로

② 아니오

→ 16-2로

C16-1. [12에서 ①번 응답자만]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①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확대
- ②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시간 배분 용이성
- ③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어려움에 대한 대안
- ④ 여성주도의 소비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 가능성
- ⑤ 여성친화산업 및 시장의 성장
- ⑥ 기타()

C16-2. [12에서 ②번 응답자만]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창업에 필요한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②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③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④ 기타()

17. 귀하는 여성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경영 및 마케팅능력 ② 자금조달 능력
- ⑤ 제품의 품질(차별성) ⑥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업종 및 아이템 선정)
- ⑦ 판로확보 ⑧ 기타()

정책보고서 2018-09

경기도 창업보육사업의 여성참여 실태와 과제

발 행 인 한 옥 자

발 행 일 2018년 06월 30일

발 행 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홈페이지 www.gfwri.kr

ISBN 978-89-6432-362-5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